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심으로 자녀삼아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323-665-0009, 323-665-9025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12월 1일 (토) 제 1708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가족이 삶의 중심” 69%가 최고가치로

퓨리서치, 미국인 9,595명에게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는지 설문조사

“제 삶에 있어서 가족은 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주어진 은혜로 제가 누리는 모든 상황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쁨들은 바로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옵니다”(퓨리서치 주관식 설문에 가족의 사랑을 적어, Top 100 응답자로 선정된 응답자)

미국인들은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까? 바로 “가족”이다. 끈끈한 정으로 뭉쳐진 가정,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물질이나 명예보다 앞서는 가치이며, 살아간다는 의미를 풍요롭게 만드는 원천인 것이다.

퓨리서치는 지난해 9월과 12월에 2차에 걸쳐, 각각 미 전역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성인 남녀 4,867명과 4,729명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미국인 중 2/3 이상인 69%가 가족을 손꼽아, 배우자나 자식, 손주 아니면 가족을 통해 주고받는 정의 나눔으로 살아간다는 결과를 얻었다(Where Americans Find Meaning in Life: Economic, religious and political divides shape where Americans find meaning - but family, career and friendship emerge as common themes).



미국인들의 69%가 삶의 의미를 가족에서 찾았다

퓨리서치 센터는 이번 설문을 위해서 두 가지 설문 방식을 사용했다. 먼저 전통적인 방법으로 15가지의 주제들을 적은 설문지 즉 객관식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차등으로 순위를 정하게 했다. 그리고 주관식으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응답자 본인이 쓰도록 했다.

그 결과, 객관식이나 주관식 설문에서 응답자의 69%가 가족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답했고, 일(34%), 돈(23%), 종교(20%), 친구(19%)가 뒤따랐다. 그리고 취미와 건강이 중요하다고 대답한 사람도 각각 19%와 16%였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모든 세대나 인종을 막론하고 미국인들에게 가족은 가장 보편적인 의미의 마르지 않는 샘이었다. 주관식이나 객관식 설문 공통적으로 가족이야말로 자신들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가치라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물론, 미혼자보다는 기혼자들이 가족을 삶의 중요한 의미로 응답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고학력에 상당한 수준의 소득을 누리고 있는 미국인들은 우정, 건강, 안정 그리고 여행을 손꼽았다. 1년에 75,000달러를 버는 미국인들 중 25%는 주관식 설문지에 친구와의 우정을 언급했다. 반면, 30,000달러 미만 응답자들은 14%만이 친구를 택했다. 비슷하게, 고소득자 중 23%와 저소득자

중 10%만이 건강을 선택했다. 그리고 대학 졸업 이상의 미국인 중 11%는 여행과 안정감을 우선시했지만, 고졸자는 3%만이 응답했다.

종교적인 차원에서, 신앙의 차이는 삶의 의미를 찾는 영역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신앙에서 의미를 찾지만, 불신자들은 활동이나 물질 영역에서만 의미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주관식 설문에서, 복음주의적 개신교인 중 43%는 신앙과 영성을, 혹은 개신교인들은 32%, 주류교단 교인은 18% 그리고 카톨릭 교인은 16%가 신앙 안에서 의미를 추구하고 있었다.

끊임없는 준비와 연구로 성장하라!

처치리더스.컴, 브랜던 켈리 목사가 전하는 설교자로 성장하기 위한 5가지 실제적 방법 소개

설교자로서 성장하고 싶은가? 물론, 당연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글을 읽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것이다. 왜? 설교자로서 성장하는 것은 가끔은 너무 막연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교자로서 성장하는 특정한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오하이오 바타비아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교회에서 영적 개발 사역을 하며, 설교 발전을 위한 사이트(https://rookiepreacher.com)를 운영하고 있는 브랜던 켈리(Brandon Kelley)는 오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말해 준다(5 Great Ways to Continually Develop as a Preacher).

소통할 수 있는 얼굴표정, 언어, 발성, 감각을 배워야 본인, 타인의 설교분석·조직신학과 성경신학 등 연구

1. 코미디언/개그맨을 보고 배워라

이를 한 번 생각해 보자. 오늘 이 시간에, 누군가 얘기하는 걸 사람들이 그냥 들으러 가는데 맞는 장소 딱 두 군데가 있다. 바로 교회와 코미디 클럽이다.

중요한 점은 코미디언은 소통의 달인이라는 사실이다. 코미디언은 그래야 한다. 이들은 특별한 아무것도 없지만 배꼽 잡는 농담으로 사람들에게 근육 운동을 시키면서 관심을 잡아둘 수 있다.

시간을 내서 관심을 기울인다면, 코미디언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특히 설교 분야에

서, 목회자로 성장하는데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코미디언을 보고 배우라는 것이다.

설교를 잘하고 싶다면, 코미디언에게서 다음과 같은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1)말보다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얼굴 표정 사용 방법 2)의도적으로 신체 언어를 쓸 수 있는 방법 3)신뢰를 쌓으며 소통하게 하는 목소리를 내는 방법 4)말 중간의 힘을 사용하는 방법 5)이야기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방법 6)일상의 가르침만한 상황을 알아채는 방법.

(3면으로 계속)



시론 2면
김봉운 목사



중세교회 1000년 7면
조진모 목사



천교도신앙 8면
이윤석 목사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LA 사무실 이전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세계 어느 곳에서든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	--	--------------------------------------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경 / 성회 책자 / 기온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 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 346-0030 5 Bri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판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rever 우표 (평상 가격엔들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aboo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Grove Blvd., Graden Grove, CA 92844

2019년 GMS 미주 OMTC 6기 선교사 훈련생 모집

GMS(Global Mission Society)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한국 최대 선교단체로, 현재 100 개국에 2600여명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GMS 미주 선교사 훈련원에서 GMS정규 특별과정 6기 선교사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선교사 파송을 받기 원하는 분이나, 파송단체가 없는 현장 선교사나 혹은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를 꿈꾸는 모든 분들은 이 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21일 월요일부터 2월 22일 금요일까지 5주간 정규특별과정을 마치시면 GMS 정식 선교사훈련 수료증과 파송과 임명을 받게됩니다. 훈련 장소는 플러튼에 있는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박사원에서 진행되며, 강사진으로는 선교 전문성을 갖춘 GMS 이사들과 현장 선교사들 그리고 선교학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GMS선교사로 훈련받아 파송 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1. 일 정: 2019년 1월 21일(월) - 2월 22일(금) 5주간
- 2. 장 소: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도서관 세미나실 201 S Basque Ave Fullerton CA92833
- 3. 과 정: GMS특별과정
- 4. 강 사: 김정훈 GMS이사장, 박무용 OMTC이사장의 다수
- 5. 훈 련 비: 1,500불(숙식 포함)
- 6. 대 상: 목회자 및 선교사, 평신도
- 7. 자 격: 1) 목사선교사후보생은 총신신대원을 졸업한 합동교단 목사 2) 장기파송은 부부선교사 파송을 원칙으로 함 3) GMS 아메리카지역 소속된 각 지부 지부장 추천 받은자 4) 전도사나 평신도는 타 교단 소속도 가능함
- 8. 훈 련: 5주 합숙 훈련이 원칙이지만 출퇴근도 가능
- 9. 등 록 마감: 2019년 1월 15일
- 10. 문 의: GMS 미주 선교사 훈련원 간사 김수정 선교사
- 11. 연 락 처: 전화번호 714 323 5011, 714-614-3666 이메일 igmc21@gmail.com



GMS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

GLOBAL MISSION SOCIETY OF 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선교센터: 경기도 화성시 팔달면 월탄길 11-10 TEL. 031-354-8861 WEBSITE: http://gms.kr

GMS 이사장: 김정훈 목사
GMS 미주 선교사 훈련원(OMTC) 이사장 박무용 목사
GMS 미주 선교사 훈련원(OMTC) 훈련원장 이병구 선교사



시론

제일 중요한 질문



김동운 목사
(백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

몇 년 전 한국에서 만난 모 교회 장로님이 교회에 처음 온 분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질문 세 가지를 말씀해주셨습니다. 고향과 학교와 직업을 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사도행전16장을 묵상하던 중 사람이 성도로서 살면서 가져야 할 제일 중요한 질문을 보게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는 구원을 받았나"라는 질문입니다. 지난 달 시론에서도 이 질문을 생각했었는데 다시 이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갇혀있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는 자유인이며 열쇠를 여러 개 가지고 있었고 혹은 로마 시민일 수 있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열쇠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미국 시민권자라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람이 만일 은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무엇보다도 목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본인도 가족들도 너무 슬픈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산불이 난 뷰트 카운티에는 집 6,700채가 전소하였는데 다섯 달 동안에 paradise(낙원)라는 곳에 집 한 채가 무서운 불길에 싸여 타고 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되니 정말로 가장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일임을 재확인해 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분이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은 분의 장례식을 집행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지만, 비록 가난하게 살다가 죽은 분이라도 구원받은 분의 장례식은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있음을 생각해보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가를 재삼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나" 자문해 봅시다.

둘째는 "나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았나"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묻는 간수에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내 가족들도 특별히 자녀들도 각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게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 또한 구원이지 않습니까! 최근 한국 S여고의 쌍둥이 자매가 전교 일등을 한 일을 조사한 결과 그 학교 교무과정인 아버지가 시험문제와 정답을 미리 알려주어서 생긴 일임이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퇴학을 당하고 일생이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의 목적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일등을 하고 일류 대학에 들어가고 일등 신랑을 만나서 일등 인생을 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등 교육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늘에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므로 지금 천국에 갈 확신을 점검해야 하며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영혼 구원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가르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쁜 자녀들에게 오늘 "나는 구원을 받았나"라고 오늘 꼭 점검해 봅시다.

셋째는 "나는 전도하고 있나"라는 질문입니다. 그 후 바울은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은 모두 바울의 전도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에 기뻐하시니 전도하는 사람도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바울이 후에 빌립보교회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편지한 것은 그가 전도하므로 얻은 기쁨이 넘쳐서일 것입니다. 필자의 교회여 집사님에게 80이 넘는 어머니가 계신데 고칠 수 없는 병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머니의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하루는 필자에게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 친정집을 방문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1시간 30분 거리의 집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돌아오며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필자 안에 계신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도 직접 혹은 텍스트 메시지로 "Believe in Jesus. Jesus loves you"라고 말하면 참 기쁩니다. 성도로서 다른 일은 열심히 하면서 전도를 안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하고 있나" 자문하면서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꼭 전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pwkim529@gmail.com

쌓이는 피곤과 영적 고갈에서 해방되기

리더십저널, 존 A. 샌포드가 진단하는 목회자 탈진 원인과 예방책 제시

존 A. 샌포드는 그의 책 (Ministry Burnout)에서 목회자 탈진의 주요 원인을 아홉 가지로 정리해준다. 목회자 탈진의 이유가 아홉 가지가 되는 것은 그만큼 목회자가 탈진에 빠지기 쉽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다.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이유는 없는지 돌아보고, 탈진을 예방하기 위해 또는 탈진에서 회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목회자 탈진의 9가지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결코 끝이 없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목회자의 사역은 끝이 없다. 한 번의 프로젝트는 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목회 사역 자체는 끝 없이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다. 아무리 애써도 끝이 없다는 느낌이 목회자를 지치게 한다.

2. 결과물이 확실히 나타나지 않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끝이 없는 사역은 마찬가지로 명확히 무엇을 성취했다는 결과물을 내세우기 어렵다는 말이기



기존의 일과와 활동이 나에게 탈진을 가져왔다면, 물리적인 스케줄과 활동의 범위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새로운 에너지를 회복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일상적인 일과 전혀 다른, 회복을 위한 새로운 일과와 시간을 확보해 두는 것이 장기적인 사역을 위해 중요하다.

창조적인 관계
회복을 위한 일과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창조성을 획득할 수 있는 개인적인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역을 위한 회의 모임이 아닌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

회복위한 새로운 일과 시간 확보, 격렬한 운동으로 스트레스 해소 자신의 상태와 의식생활을 일지로 기록해 통찰력 얻는 토대 조성

도 하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도 그 결과가 확실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도 한다.

3.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목회자의 사역은 시간적으로도 반복적이다. 매년, 매분기, 매주 반복되는 사역이 지속된다. 쉴 새 없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역이 목회자를 지치게 하기도 한다.

4.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기대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목회자는 어떤 직업, 가치관, 환경의 사람을 만날지 모른다. 그들의 상황만큼이나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바도 다양하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대를 다루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5. 매년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목회자는 다양한 기대를 충족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크게 변화 없는 동역자들과 계속해서 사역하게 된다. 동역자와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에 한계가 명확한 동역자들은 때론 목회자에게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

6. 항상 남들의 필요를 채워주

어야 하기 때문에
목회 사역이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자주 접하는 일이다. 필요를 채워 받은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비할데 없는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고갈된 상황에서 남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 사역에 직면하게 되면, 허탈감이 몰려오게 된다.

7. 달래는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목회자는 주로 존중 받는 위치에서 있게 되지만, 존중 받는 위치는 한편 목회자가 '어른'으로서 사역대상인 '아이'를 달래는 듯한 관계를 형성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기울어진 역학관계는 목회자가 정당한 비판을 해야 할 때에도 그 마음을 포기하고 달래는 역할을 강요 받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8. 진실한 자아를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에
목회자는 사역 대상이 필요로 하는 모습에 자신을 맞추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자

기 본연의 모습과 멀어 보이는 이상적인 모습을 취하려고 할 때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9.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도 사역에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목회이다. 실제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목회자는 역시 좌절에 빠지게 된다. 이처럼 다양한 탈진의 요소가 목회자의 사역에 숨어 있다. 목회자 개인마다 탈진하게 되는 환경 역시 다양하다. 목회자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회복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과 회복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실천할 만한 구체적인 도움의 방법 역시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외적 활동의 변화

의 모임을 추천한다.

몸을 창조적으로 활용하기
대부분 앞서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에게 몸 자체를 활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는 몸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는 것만으로도 해소되기도 한다. 심호흡을 해야 할 정도로 격렬한 운동을 추천한다. 심호흡은 사람을 의기소침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한다.

일지 쓰기
자신의 상태와 의식 생활을 일지로 기록해 본다. 자신이 당면한 어려움에 합몰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통찰력을 획득하는 토대가 된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춘
■ 편집국장: 유원정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323)665-0009(대 표) (323)865-9025(광고국)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 In Music 음악 BA In Theology 성서신학, 기독교교육학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항공학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 In Music 음악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석사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Music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Ph.D. in Leadership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점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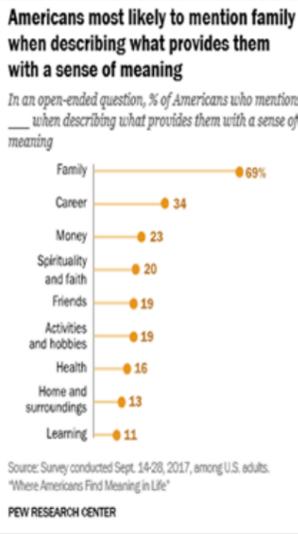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e@midwest.edu

“가족이 삶의 중심” 69%가 최고가치로



(1면에서 계속)
 객관식 설문에서는 그 쪽이 더욱 확장됐다. 무려 65%나 되는 복음주의적 개신교인들이 응답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성향 역시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에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미국인들이 진보적인 미국인들보다 종교를 통해 그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미국인 중 38%가 신앙과 영성이 의미를 찾고 성취감을 누리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다고 말한 반면, 진보적인 미국인은 불과 8%만이 동의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관식 설문에 응답한 미국인들의 응답 중 몇 가지를 간추려 소개 한다:
 한 응답자는 타인의 친절함을 행복의

요소로 꼽았다.
 "이 도시에서 매일 보는 누군가의 친절한 행위가 저에게 힘의 원천이 돼요. 한 아이가 출근길 기차에서 넘어지면서 장난감을 부러뜨렸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다시 조립하는 것을 도와줬어요."
 일과 돈을 중요한 가치로 본 응답자들도 있었다.
 "지금 내가 하는 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해요.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있거든요. 전에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누리는데 많은 것들을 옆에서 지켜만 봐야 했죠."
 또 다른 응답자도 말했다.
 "일을 할 수 있었던 능력이 그리워요. 내가 사고 싶었던 옷을 사고, 카페에 가고 근사한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었던 기억들, 이 모든 것이 그리워요."

(1면에서 계속)

2. 설교를 녹음해보고, 조사하고, 분석해라. 동영상이면 더 좋다.

이는 필자가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본능적으로 했던 일이다. 사실, 신시내티신학대학교(Cincinnati Christian University)에 데이비드 레이(David Ray) 교수 첫 설교 수업에서 이를 배웠다. 성장하고 싶다면, 반드시 집에 가서 목적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설교를 녹음하는 것이 좋다.

맞다. 필자가 SNS로 여러분이 주일을 보내고 주일 설교가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의 영상 설교를 보는 것을 대단히 좋아하지만,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반드시 대중 앞에 나갈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냥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찍게 할 수도 있다. 왜? 목표는 단순히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보고 있다면, 생각해 볼만한 10가지 질문을 보자.

1)설교 원고에 집중하는가 아니면 성도들에 집중하는가? 2)힘과 열정으로 설교하는가 아니면 둘 중 하나가 부족한가? 3)성경을 충실히 전했다? 4)설교를 통하여 복음을 열고 있는가? 5)실질적인 예가 관촬았나? 다시 사용한다면 어떻게 더 낫게 할 수 있을까? 6)본문 적용이 자연스럽고 오늘날의 삶과 본문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 7)신체 언어와 동작을 잘 사용하였나? 8)설교의 모든 부분이 성령의 손길에 따랐는가 아니면 자신의 힘에 의지하였는가? 9)설교의 가장 핵심 생각이 적용 가능한 것이었나? 10)결국에는 비

행기를 잘 착륙시켰나?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

3. 다양한 목회자의 설교를 많이 들어라

목회자로 계속 성장하고 싶다면, 설교를 듣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가장 좋은 방법은 설교를 더 많이 듣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은 가장 선호하는 목회자의 설교가 아니라, 폭넓고 다양한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것이다.

신학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자신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것을 적극 추천한다. 누구에게서나 배울 수 있다.

4. 성경과 신학 이론을 더 읽어라

끊임없이 목회자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훌륭히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개발해야 한다. 말씀 속에 있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발치로 가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

더 나은 본문을 갖고 싶다면, 하나님의 심장과 정신(minds)을 개발해야 한다. 방대하게 읽어라.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을 읽어라. 그리고 특정 신학 주제에 관한 책을 읽어라. 변증학에 관해 읽고 공공 신학에 관한 책을 읽어라. 친숙하지 않은 저자의 책도 읽고 친숙한 저



자의 책도 읽어라. 그리고 동의하지 않은 저자의 책도 읽고 동의하는 저자의 책도 읽어라.

5. 설교 코치(coach)를 가져라

누구나 설교 멘토를 가질 수 있다. 설교 멘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보여줄 수 있다. 멘토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짚어줄 수 있다. 설교 멘토는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할 것이다.
 속해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은퇴 목사가 멘토일 수 있다. 설교 과정을 가르치는 입학 대학원 교수일 수 있다. 지금 읽고 있는 설교에 관한 책을 쓴 목회자가 될 수 있다.

들을 습관화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탈진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회복의 방법을 미리 준비하는 연말이 되자.

[알림] 본지는 추수감사절 특집호 발행후 한 주를 쉬었습니다. 따라서 11월 24일자는 발행되지 않았습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쌓이는 피곤과 영적 고갈에서 해방되기

(2면에서 계속)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기록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확보하게 할 수도 있다. 일지는 자신의 에너지를 담아 두었다가 다시 활용하는 그릇이 될 수 있다.

결국 자신의 상황을 비춰보고, 가능한 다양한 회복의 요소들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한다. 만약 아직 탈진의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자신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문화 칼럼



김기원 목사

장위제일교회 원로, 목양 헬프 대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생명

생명의 자유 그것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의 생명이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도 물론입니다. 어제 떠난 자들의 고귀한 잔생이요, 남은 조각들입니다. 좋은 생각들의 인도를 받고 살다가, 생각을 다 이루지 못한 채 남겨두고 간자들의 삶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30%의 좋은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인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섬김과 죽음을 통해 사랑의 완성을 깨닫게 하고 보여 주었습니다.

사랑 없이 좋은 삶이 이루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이루어지는 사랑은 없습니다. 나타나는 것은 사랑의 거울이요, 표징입니다.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존재하지만, 이웃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것이 선한 영향일수도 있고, 나쁜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 밥을 먹고 사랑하기 위해 숨을 쉰다. 준비가 늦어도 준비가 필요하고, 준비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3년을 위해 30년을 준비했습니다. 모세는 40년 사역을 위해 80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준비기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준비기간도 사명감당의 기간입니다.

사랑하다 죽어도 행복합니다. 사랑하다 죽어도/기다려다 죽어도/준비하다 죽어도/더 깊은 외로움도/더 진한 고통도/더 깊이 빠진 사랑도 행복하여라/고독을 이길 수 있는 밤이여라/네가 있기에 내가 행복하고, 네가 행복하기에 내가 감사하노라.

제비꽃이 장미다울 필요는 없지만, 장미가 제비꽃을 부러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망하지 않는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산산이 조각난 삶이라고 다시 붙이려 하기 보다, 그저 날마다 충실히 사는 것, 그것이 창조주의 뜻이요, 죽음에 가장 이상적인 준비라고 봅니다.

오늘은 어제의 바람도 비도 그치고, 구름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모여 있지만, 자신을 위해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것은, 소망의 하루보다 힘들다는 사실 앞에 인생을 인정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자리를 최후의 순간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선장의 자리와 선원의 자리를 지켜야 하듯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사는 삶,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너와 나는 하나님이다. 사막의 풀은 자라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존을 위한 피나는 노력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혜택도 서로 서로의 주지 못하지만 사막은 사막대로 존재하며 갑니다. 이것은 땅과 하늘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입니다. 죽음과 생명도 하나요, 아침과 저녁도 하나요, 너와 나도, 만남과 이별도 하나입니다.

나는 2만권의 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3백여 권의 자신의 집필저서 중 120권이 출판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책이 있다는 것은 사상이 있다는 것이요, 생각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책이 적다는 것은 생각이 적다는 것이요,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영양가 있는 음식에 관심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천년을 사랑해도 한번은 이별합니다. 이별은 인생의 일상이고 본질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책과 이별해도, 책은 오래 오래 남습니다. 이것이 본질의 차이요, 가치의 차이입니다. 별을 보려면 밤이 필요합니다. 밤이 와야 새벽이 오지요.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노래합니다. 인생은 외롭습니다. 외로우니까 인생입니다. 울음이 있으니까 인생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는 신비였습니다. 쓰러진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몸부림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항구에는 배가 있어야 하지만, 항구에 정박시키기 위해 배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형제의 사랑이 심장에 새겨지는 것도, 부모님의 사랑에 잠기게 되는 것도, 쓰러진 가운데 몸부림과 고통속이었기에 더욱 선명하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망가진 인생 속에 다시 인생을 조각조각 짜집기 해보고, 인생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노력이 인생다워지는 모습입니다. 아파서 너무 너무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지금까지 고통과 싸우며 지내온 것은 주님이 내안에 계시기 때문이요, 주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이요, 주 없이 살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죽지 않습니다. 나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난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촌놈입니다. 그러나 나는 40년간 쓰임 받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 스토리입니다.

나에게는 밤이 필요했습니다. 잃어버린 어제가 사라진 시간이 아니라 눈물 속에 잠드는 시간이었지만 주님이 안아주시는 시간이여라. 주님으로 채워진 시간입니다.

kkwon2002@hanmail.net

동역자를 청빙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45년의 한인미교회 역사 위에 다민족 선교와 다음세대 양육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퀸즈장로교회가 함께 동역할 두분의 목사님과 한분의 찬양사역자를 다음과 같이 청빙하고자합니다.

1.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2. 목사님은 35세~45세 전후로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리더십과 설교의 은사가 강하시면 좋겠습니다.
3. 찬양사역자(목사님 또는 전도사님)도 35세 전후이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하신 분이 좋겠습니다.
4. 언어와 신분에 어려움이 없으셔야 합니다.
5. 이력서, 자기소개서, 목사님 추천서, 지인 추천서
6. 2018년 12월 31일까지 우편이나 Email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보내실 곳

퀸즈장로교회 동역자 청빙 위원회
 주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Email: kapcqmain@gmail.com

퀸즈장로교회

담임 김성국 목사

담임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초교과 교회로써 지난48년동안 휴스턴 한인지역 사회에서 보수전통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에 힘써온 휴스턴 한인교회에서 아래와 같이 제8대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지원자격**
1. 정규목사교육과정 (M. Div.)을 이수하신분
 2. 55세 미만
 3. 미시민권자, 영주권자이시거나또는미국에합법적으로체류하고계신분
 - 4.이중언어(한국어/영어) 가능하신분

- 제출서류**
1. 이력서및가족소개서
 2. 목회비전및신앙고백서(3 Page 미만)
 3. 최근설교2회분 동영상 또는CD/DVD/USB
 - 4.목회안수 증명서
 - 5.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
 - 6.추천서(2인) 및 조회처 List (최소 3곳 기재)

기타사항

-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 않습니다.
-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서류심사후, 청빙후보자에게 개별통지 드립니다.
- 접수는 우편이나 이메일로만받습니다. (전화문의사절)
- 봉투 겉면에 "담임목사 청빙서류 재중" 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 2018년 12월 31일

제 출 처

1. 우편 Korean Christian Church of Houston c/o KCCH 청빙위원회 10410 Clay Rd, Houston TX 77041
2. 이메일 kcch2019@gmail.com

휴스턴 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집정관님, 눈치 좀 보시지그랬어요!

우리 교회 주소는 비아 퀸틸리(Via Quintili)이다. 퀸틸리의 가문의 퀸틸리 형제는 로마의 미치광이 황제인 콤모두스 시대 활약했던 뛰어난 집정관이다. 교회 주변의 주소들은 모두 공화정 시대 유명인사들의 이름들로 명명했다. 공화정 시대의 집정관, 호민관, 재무관, 장군, 법무관 등등. 그만큼 로마인들은 공화정 시대를 흠모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면 로마가 쇠퇴의 길로 걷게 된 것은 영웅 시제 때부터다. 그는 공화정을 뒤엎어 버리고 1인 권력의 집중 제도로 전환시킨 사람이다. 마치 현재 중국의 국가 주석 시진핑처럼...공화정 시대에는

국가의 어려움이 일어날 때 원로원에서 결의하여 집정관을 선출하였고, 그 임기는 6개월이었고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는 제도였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제도를 시제는 파기해버리고 스스로 종신 집정관에 취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세기의 제정 로마시대 활동했던 퀸틸리를 중요한 길 이름으로 사용한 것은 그만큼 그는 탁월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퀸틸리 가문의 막시무스와 콘디아누스는 아주 특별한 형제로 유명하였다. 대체적으로 형이 똑똑하면 동생이 조금 못하고, 아니면 반대인 경우가 흔한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학문, 직

업, 관심과 취미까지도 같았다. 막대한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로 서로 다투지도 않았다. 로마의 최고 지위인 집정관도 형제가 차례로 역임하였고, 원로원 의원도 사이좋게 함께 했다. 그래서 로마에서 존경 받는 유명한 인사가 되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 이들의 집이 아피아 안티카(Appia Antica) 길가에 있는데,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입장료를 지불해야 들어갈 수 있다. 언젠가 한번 들어가 보았더니 입이 딱 벌어질 정도였다. 개인 집치고는 터가 지나치게 넓고 집이 궁궐처럼 웅장하고 화려했다. 개인 목욕탕도 있는데 마치 황제들의 목욕탕과 비금 같 정도로 대단했다.

이런 놀라운 개인 저택을 보면서 의구심이 일어났다. 꼭 이런 식으로 대저택을 건축했어야 할까? 그토록 세상 물정에 해박하고 지혜로운 형제들이 말이다. 이 형제가 살던 시대는 로마의 역대 황제들 가운데 제 정신이 아닌 황제로 역사가들의 가심거리로 사용하는 콤모두스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황제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위대한 장군이나 뛰어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 지도자가 훌륭한 안목을 가지게 될 때 재능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이다.

막시무스 형제는 황제에게 눈꼽사나운 대상이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존경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기회가 되었을 때 황제는 두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다. 그는 결국 황제에 의해 역적모의에 가담했다는 누명을 쓰고 182년에 죽임을 당했고, 전 재산을 몰수당했다. 황제가 부자의 재산을 강탈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다. 즉 역적모의에 가담했다는 누명이다. 이런 것은 세계가 공통일 것이다. 적당히 증거자를 몇 명 세우면 일사천리로 위하게 된다. 그런 다음 그의 많은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 자신의 방탕의 매체로 사용하면 그만이었다.

콤모두스는 누군가? 아버지 아우렐리우스는 오현제의 마지막 황제로 훌륭한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이었다. 그는 게르만 장벽을 방어하기 위해 말을 타고 전선을 다니면서 번뜩이는 단상들을 메모한 내용들이 지금도 서점에 놓여 있고 현대인들의 심금을 울리는 글을 남긴 현명한 황제이었다. 그런데 아들은 전혀 달랐다. 아들은 로마의 황제 가운데 학문을 멀리한 최초의 황제이었다. 그는 학업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검투사 경기에 빠져있었다. 검투사 경기가 당시에는 가장 인기가 있었기에 황제가 즐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콤모두스는 자신이 직접 갑옷을 입고 경기장에 나가서 싸우는 황제였다. 내로 황제가 그리스에서 열리는 성악 풍쿠르에 나갔던 것처럼...

콤모두스는 무려 735번이나 피터지는 싸움을 했다. 죽고 죽이는 행한 경기는 100전 100승이었던 것이다. 누가 감이 황제가 검투사로 나섰는데 그를 이길 수 있었겠는가! 글라디에이터 영화에서는 황제가 검투사 경기 중에 죽는 것으로 나오지만 이것은 픽션이다. 황제는 항상 승리했고,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말이 있었이 검투사의 공동 기금에서 수당을 받아 갈 정도로 이해 불가한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자였다. 그가 가져간 금액이 상당하였기에 백성들로 흥분한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이었다. 그는 게르만 장벽을 방어하기 위해 말을 타고 전선을 다니면서 번뜩이는 단상들을 메모한 내용들이 지금도 서점에 놓여 있고 현대인들의 심금을 울리는 글을 남긴 현명한 황제이었다. 그런데 아들은 전혀 달랐다. 아들은 로마의 황제 가운데 학문을 멀리한 최초의 황제이었다. 그는 학업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검투사 경기에 빠져있었다. 검투사 경기가 당시에는 가장 인기가 있었기에 황제가 즐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야 한다고 한다. 화장실을 갈 상황에서, 이번에는 큰 거를 보겠는지를 파악하고 화장실을 준비하여 화장실 앞에 대기할 수 있는 제자라야 졸음 후에 시간 강사자리라도 한 자리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유능하고 백성의 사랑을 받던 집정관 형제는 왜 황제의 눈치를 살피지 않았을까? 집을 지을 때 으리으리한 저택을 짓지 말고 평범하고 소박한 집을 지었다면 태풍을 피해갈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돈이 넘치다보면 곡간에 쌓아놓고 가난한 원로원 위원을 돕는대거나 돌이켜 조용히 기뻐하였다면 후에 역적으로 몰리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다.

자신들이 역적모의에 고발당하여 오랏줄에 묶여 형장으로 갈 때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들이 눈물 뿌리며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후회와 분노의 피눈물을 흘렸을까 싶다. 차라리 그 돈을 모두 버리던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걸 그랬다고 후회하지 않았을까?

당신이 눈치 보지 않으므로 그 귀한 재능이 일찍 땅에 묻히게 되었다. 더 살아서 국가를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할 집정관 형제가 억울하게 삶을 끝내야 하였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막시무스 형제 집정관님! 눈치 좀 보시 그랬어요!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홍인석 목사
(뉴저지 하늘교회)



주제: 우리가 받은 진정한 축복은 실상의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여러 형태의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함은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하는 믿음의 현실이다.

요한복음 16장의 배경은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13장의 세족식, 성찬식, 새 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가르쳐 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원치 않는 미움과 공격을 받을 것

이라고 말씀하신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고

핍박할 것이라 하신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 현상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는 이런 어려운 현상을, 실상의 능력으로 이겨야 한다고 하신다. 실상 이신

성령님은 과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1. 첫 번째로 실상이신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8, 9절). 세상 임금의 거짓 권세인 죄와 죽음을.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8, 9절). 성, 회개의 음성,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하여 화를 내시고, 단죄하시고, 물리치시고, 죄의 거짓 권세를 멸하시는 성령님의 책망의 선포

죄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고, 그 결과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영망으로 만들어 놓은 원인이다. 이런 죄를-우리의 삶이 모든 축복을 망쳐놓은 원인인 죄를, 우리의 삶에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죄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으로 놀리지 말고, 현상 속에 벌여지는 죄에 대한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성령의 탄식하시는 음

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실상인 것이다.

얼마나 많은 순간과 현상들을 내 눈으로 보고, 혹은 남의 눈을 통해서 보고 휩쓸려 다니는가!

2. 두 번째로는 실상이신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증거하신다(10절).

여기에서 '의'는 예수님 자신이시다. 죄를 멸하시고 책망하신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 올바른 선포와 선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에

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어도, 세상이나 애굽을 떠났다. 그러나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얻은 것은 무엇일까? 아니, 무엇이였어야 할까? 광야 생활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루하루 만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며 그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신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광야 생활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참 만나가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요6:63)는 진리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달아 순종의 결정을 하며 살아간 다. (5면으로 계속)

“실상의 축복으로 살자” (요한복음 16장 1-11절)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목회상담학 DMin in Counsel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630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인터넷 문명의 발달로 욕심만큼 편리와 편안함을 얻고 누리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참된 평안과 안식은 회복되지 못하고, 외려 죄로 인한 혼란과 무질서만이 가득하게 피어나는 것을 본다. 뿌리가 없는 나무에 물을 주면 나무는 썩어 들어가기 마련이다. 기초가 없고 본질이 정립되지 못한 채 많은 생각과 사상들을 듣고 보고 경험하게 될 때, 결국 그 영혼과 삶이 병들어 썩게 되는 것을 본다. 병들어 썩어가는 영혼은 결코 복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교회의 본질회복

무엇이든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본질을 벗어

나쁜 본질에도 마지막 시간은 3시간 가까이 예배를 드렸다. 본인의 목회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이런 저런 미사여구 없이 말씀을 잊는 그대로 증거하려고 애를 쓰시거나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다.

특히 기억나는 것은, 미국 이민 교회 가운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단을 탈퇴하기 위해 교회재산을 그대로 두고 나온 동부의 어느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다고 한다. 그래서 교회가 이 악한 세대가 운데서도 진리를 위해 몸부림치는 그 교회를 도우려고, 단 한 번의 일면식도 없는 교회에 10만불의 헌금을 보냈다고 한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에 그렇게 한 것이다. 집회 내내,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저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사

관하기도 한다. 저들 눈에는 십자가를 걸고 있으니 다같은 교회로 보이는 모양이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예언대로 세상과 시대가 악해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악한 시대와 세상만 원망하며 살 수는 없지 않는가? 앞서 소개한 교회와 목사님처럼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로 돌아가면 강해질 수 있다. 강해지면, 세상이 넘볼 수 없고 세상이 공격할지라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한 순간에 땅이 꺼지듯 무너져 내리게 된다. 과연 목회자가 말씀의 원리를 가진 목회의 본질에 충실한가? 교회는 그 본질에 순종하며 따르는가? 자기 자랑과 교만이 아닌,

다. 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디가든지 몸을 기대고 싶어 하는 것이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교회는 본질을 가르쳐라

무당과 점쟁이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전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라고 한다. 예수 믿다가 답을 못 얻었다. 그래서 해매다가 무당에 찾아갔다. 점쟁이한테 찾아갔다. 얘기를 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내가 귀신에 들려있다. 마귀에 붙잡혀 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랬더니 점쟁이가 이렇게 하라! 해서 답이 나왔다. 문제가 해결됐다. 일시적이지만 해결이 되었기에 거기서 신을 받아서, 그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미국은 청교도들의 추수감사로 인해 11월 넷째 주일 목요일에 미국 추수감사절이 생겨난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 감사의 감사축제를 몇 번이나 가지라고 말했는지요?

A: 우리는 추수감사의 절기를 일년에 한번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번이 아니라 3번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이 레위기 2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추수감사는 초실절입니다. 이것은 보리농사를 마치고 수확한 보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먼저 제사장에게 가져옵니다. 제사장은 보리 첫 곡물인 보리를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가져와 바친다는 것은 모든 만물의

성경의 추수감사는 3번...초막절이 현대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

주인은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 분께 감사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떼어든지 붉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첫 소산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의 것을 나를 위해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첫 소산을 드리지 않고는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3장 9절에서 "네 제물과 네 소산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통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추수감사는 칠칠절입니다. 이 칠칠절은 초실절 이후 7주 지난 다음날 즉 50일째 되는 날에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히브리 최대의 농경제였습니다. 이것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구약의 오순절의 목적은 풍성한 밀의 수확을 주신 기쁨과 감사의 표를 하는 동시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드리었습니다. 그 날이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십계명의 돌비를 받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신약의 오순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이 감동하신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바치는 것이 유교병(누룩병은 떡) 떡 두 덩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신약시대의 두 교회, 즉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전파되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의 추수감사는 초막절입니다. 이 때 포도와 무화과를 거두어들이고 일년 간의 모든 각종 농사를 다 추수하여 마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직장과 사업체를 통해 먹을 것과 마실 것 등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출애굽 후 40년간 광야, 사람이 살 수 없고 먹을 것도 없는 황량하고 위험한 광야에서 40년간 장막 생활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만나를 먹이시고 생수를 먹이시고 보호해주신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즉 새 예루살렘 즉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복된 영화를 누릴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백성들은 첫 번째가 보리 추수, 둘째가 밀 추수, 셋째가 모든 각종 추수들을 위해 감사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세상에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배운망덕하게 사는 길과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할 줄 아는 감사의 길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세상에 답을 주는 교회

-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회복

난 것을 가리켜 타락이라고 하고 부패가 되었다고 한다. 세상 곳곳에서, 교회 곳곳에서 어려움과 시련거리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를 연구해보면 결국은 본질에서 벗어난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은 본질이란 게 있는데, 본질을 잃은 데서 많은 것들이 변질되고 나중에는 멸망한 것까지 부패시키게 됨을 본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늘 나라의 본질인 하나님의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때 세상의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교회는 죄악 된 세상을 살리는 시작과 끝이며, 기준점이 되고 다름 줄이 되기 때문이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살릴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눈에 보이는 것, 돈 많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대형교회로 크게 짓는 것 외에 할 게 뭐가 있겠는가? 교회가 부흥한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처럼 눈에 보이는 말씀하는 분들이 많다.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인 수는 얼마나 이런 말을 많이 한다. 과연 그것이 교회의 본질일까?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없다.

교회가 아무리 큰 건물이 있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는가?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 보이는 건물도 기초가 부실해서 땅이 꺼져가거나 혹은 부실공사로 건물한쪽이 기울어간다면 건물의 크고 아름다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본질이 아닌 것을 붙들고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울 뿐이다.

본질에 바로 선 교회

본질이 분명할 때, 교회의 사이에 관계없이 주님의 기쁨이 되며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이 된다. 최근 본 교회 가을 성회를 위해 어떤 선교사님의 소개로 한국에서 한 목사님을 청했다. 2만명의 성도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이름이 꽤 알려진 목사님이셨다. 성회를 앞두고 약간은 긴장이 되었다. 강칭해서 모셨지만, 한 번도 교제해본 적이 없는 잘 모르는 분이 라는 것과, 대형교회 목회자에 대한 약간의 선입견 탓이기도 했다.

그런데 놀랄 정도로 은혜가 넘쳤다. 대형교회 목회자가 가지는 특별한 은사나 목회적 기교나 거드름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소박한 분이셨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보다 더 소박하게 말씀을 진지하게 열심으로 전해주셨다. 교통사고를 당해,

모함과 감격함이 있었다. 근래 보기 드문 은혜가 임하였다. 마지막 말씀은 온 성도가 눈물가운데 받은 기억들이 생생하다.

본질의 힘-성경대로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은혜가 되었을까를 생각해보니, 다름 아닌 본질의 문제였다. 본질을 붙들고 사역하기 때문에 힘이 있었던 것이다. 성경을 가르치고 전함에 있어서 빠지는(?) 것이 없었다. 십일조, 주일성수, 새벽기도, 교회의 인사와 행정 및 재정권들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전하였다. 성경에 있다는 것이다. 성경대로 전하는 것이 목사의 본분이고, 그것을 지키고 아니 지키고는 성도들의 목이라는 것이다. 바르게 지적하셨다. 성도들을 훈련하고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또 배우고 순종하지 않고서, 서로 간에 자기 생각과 소견대로 믿고 행하는 일로 인해 상호 원망하고 저주하고 정죄한다는 것이다.

기억에 남는 예화가 있다. 어느 시골에서 올라온 파출부가 잔디밭을 잡초인줄 알고 쇠괘쟁이로 다 헤집어 놓았다는 것이다. 가정부는 칭찬을 기대하며 열심히 일했더니 터진 칭찬은 고사하고 큰 손해를 끼치게 된 것이다. 성실함이 무지함과 연결되어 감정의 해를 끼친다는 교훈이었다. 누구의 책임이 중할까?

주인의 책임이 우선적이다. 일러주지 않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은 채로, 알아서 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며 책망 받는 교회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두 부류의 지도자가 있음을 본다. 은혜로 모든 것을 깨닫고 행할 날이 오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다. 반면에,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기대해야 한다는 분들이 있다. 생각건대, 두 가지 모두 옳은 말이다.

은혜로 되는 것이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은혜의 그늘아래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인성을 향해서는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우도록 해야 한다. 은혜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 본질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대형교회들의 약재

오늘날 대형교회의 문제들을 파헤쳐 인문들이 집중적으로 편파적인 공격들을 자행하는 것을 본다. 게다가 교회 이름을 걸고 있는 이단의 소식과 함께 도매금으로 비

판하기도 한다. 저들 눈에는 십자가를 걸고 있으니 다같은 교회로 보이는 모양이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예언대로 세상과 시대가 악해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악한 시대와 세상만 원망하며 살 수는 없지 않는가? 앞서 소개한 교회와 목사님처럼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로 돌아가면 강해질 수 있다. 강해지면, 세상이 넘볼 수 없고 세상이 공격할지라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본질을 잃으면 변질되는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이다. 교회는 본질을 잃으면 끝이고 성도도 본질을 잃으면 끝이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언젠가는 변질되어 악취가 진동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은 본질에 성도와 목회자, 그리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 분명한 정의를 말한다. 소금이 짠맛을 내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짐을 말해준다.

답을 줄 수 있는 교회

문제가 많아도 본질이 분명하면 얼마든지 세상을 향해 답을 내어 놓을 수 있다.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는 때문에 사람들이 흠어져서 어디선가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마귀에 붙잡혀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움직이지 못하고, 다리 저는 사람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도 예수께로 달려왔던 것이다. 그들이 와서 어떻게 됐는가? 답을 얻었다. 헌신은 너무 당연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한 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업까지 내려놓고 달려가게 되었다.

그러면 교회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줄 수 있는가? 해결해줄 수 없으며, 다 해결 필요도 없다. 교회는 교회가 가지는 분명한 한 가지 해답을 주면 된다. 마치 금과 은을 요구하는 성전미문에 얽은 거지에게, 내가 원하는 금과 은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하게 전하므로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된 것이다. 늘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거지가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하려하다 보면,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답을 말하지 못하고, 마침내 많은 이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가? 교회 오는 게 생업을 뒤로하고 달려가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에서 더 답을 얻는 것이라 생각해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를 듣지는 것이

이 무당으로부터 신을 받고 내림신을 받아서 그들이 무당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를 말하는 곳이어야 한다. 상처가 많은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바로 삶의 문제에서 어디로 가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물론엔 교회로 가야 된다고 말할 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교회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교회 가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모든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다. 교회가 답을 줄 수 없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자기의 문제에 답을 찾았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회복이다.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교회는 교회됨을 지키고, 그 본질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 할 때, 예수 안에 변화된 생명들이 결국은 세상이 바꾸고 회복시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늘 본질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다.

davidnjeon@yahoo.com

<4면에서 계속>

그러나 순종의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의를 더욱 더 깨달음으로 순종을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향해 올바르게 결정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의로 지속적으로 깨닫고 주님을 알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종교 행위로 끝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아버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셔서 하나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의 의 안으로 더욱 들어가도록, 예수님의 의에 대하여 성령님은 선포하신다. 우리를 가르치신다. 이것이 바로 실상인 것이다.

3. 세 번째는 실상인신 성령님은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신다.

세상의 임금을 책망하신다. 얼마나 통쾌하고, 놀라운 일인가? 세상의 왕 노릇하고 있는 거짓 영에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세상을 향해, 조롱하고 검을 주었던 세상 임금을 향

해,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이 선포되어진다. 예수님이 선포되어지실 자체로, 어둠은 사라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다. 실상의 성령의 역사이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는가?

세상이 우리를 꾀박해도, 우리의 목숨까지도 위협한다 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선포하시고 심판하시는 역사를 깨닫는다면 우리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굳히며 우뚝 세워질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바로, 곧 세계 선포되어 지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수 없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분명한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참 제자인 성도들은 오직 실상을 올바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 우리 삶 앞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게 내 마음과 생각을 모조리 빼앗기지 말자!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역사 자체로, 어둠은 사라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다. 실상의 성령의 역사이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는가? 세상이 우리를 꾀박해도, 우리의 목숨까지도 위협한다 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선포하시고 심판하시는 역사를 깨닫는다면 우리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굳히며 우뚝 세워질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바로, 곧 세계 선포되어 지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수 없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분명한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참 제자인 성도들은 오직 실상을 올바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 우리 삶 앞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pf-hong@msn.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말레이시아의 후이(Hui)



후이족은 중국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들은 약 9백만 이상의 인구로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무슬림 공동체를 형성했다. 현재 후이족의 약 10,700명 정도가 말레이시아 전역에 살고 있다. 7세기부터 14세기까지에 걸쳐 중국에 왔던 무슬림 상인, 군인들, 관료들에게서 후이족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무슬림들은 정확히 그 지역의 중국인 한족 여성과 결혼했다. 후이족은 후에 두 차례에 걸쳐

대 이주를 했는데 첫 번째는 17세기 중반 즈음에 이뤄졌고 두 번째는 1949년 중국의 공산주의에 의한 군사혁명 때였다. 다수의 후이족은 중국과의 해상 경제 활동을 연계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로 이주했다. 오늘날 말레이시아에 있는 중국인들은 가장 큰 무리의 이민자 집단이다. 중국인 중 다수는 불교도이고, 이 점이 말레이시아 사회에서 어울리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후이족은 말레이족과 무슬림 신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사회에 더욱 쉽게 적응했다.

삶의 모습

한때 후이족은 농부와 노동자 신분이었지만 현재는 상업과, 산업, 서비스 분야에서 더 많이 일하고 있다. 거의 모든 후이족들이 도시 혹은 도시 주변에 살고 있으며 대부분 레스토랑, 정육점, 산업, 광업 그리고 무역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후이족의 생활은 일반적으로 모스크(이슬람 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말레이 법은 말레이인을 "말레이 인종에 속한 사람 골 평소 말레이어를 사용하고 무슬림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한다. 같은 이슬람교를 믿는다 해도 이러한 제한을 넘어설 수는 없다. 중국 무슬림의 경우에는 기원의 차이가 주장된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경제적 구조에서 중국인들이 가진 지위를 통해 또한 중국무슬림협회와 같은 공식적 기관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후이족을 포함한 말레이시아의 중국인들은 학교, 사회, 경제, 정치적 조직들을 자치적으로 갖고

있다. 1995년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중국계 중고등학교의 수는 60개에 이른다. 이 학교들은 교육의 매개로 영어와 만다린어를 사용한다. 그들은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인 지역사회로부터 받는 기부를 통해 학교를 유지해야만 한다. 대부분의 말레이시아인 직업은 정부에 의해 생성된다. 이러한 일자에 지원되는 사람들은 말레이어인 바하사 말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후이족은 이러한 요구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후이족 사람들이 말레이어를 안다 할지라도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말레이어를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후이족 사람들은 힘이 넘치고 공격적이며 스스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가지며, 뛰어난 사업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다른 중국인들과는 구분되는 몇몇 관습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왜

지, 말, 당나귀, 노새 또는 야생 동물 고기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무슬림 관습에 따라 후이족 여성들은 후이족이 아닌 남성과 결혼할 수 없지만, 후이 남성은 여성이 이슬람교로 개종하지만 한다면 후이족인 아닌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 가계는 부계 중심이며 가족들은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 구성된다. 신앙 대부분의 후이족은 수니파 무슬림(Sunni Muslim)으로 세계에서 가장 덜 급진적인 무슬림들이다. 말레이 무슬림들은 후이족들이 무슬림으로서 신앙이 부족하다고 종종 후이족에게 분개하기도 한다. 후이족은 "푸르다(Purdah, 여성의 몸과 머리를 완전히 가리는 덮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영화 "예수"와 기독교 라디오방송이 복음전파에 사용될 수 있으며, 성서도 그들의 언어로 번역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들 사이에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필요로 하는 것들 종교의 자유가 대한 헌법적 보장이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슬림을 개종시키는 것은 불법이지만 무슬림들은 그들이 선택하는 누구든지 개종시킬 수 있다. 그래서 후이인들은 박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무슬림들은 말레이시아에 활동적인 선교 기관이나 이슬람 연합을 상징하는 이슬람 단체인 "다크와(dakwah)"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인 무슬림 같이 탐탁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조직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후이족들은 그들을 결코 거부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요가는 피에야할 악(惡)" 미 대형교회 목사 설교 시골

미국의 한 초대형 교회 목회자가 요가를 악(惡)으로 묘사하며 기독교인들이 가까이 해선 안 될 대상이라고 지목해 논란이다. 공감하는 의견도 있지만 요가는 종교와 무관하며 몸과 마음을 맑게 해주는 수련일 뿐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스프링필드뉴스리더닷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주리 주 오자크 소재 제임스리버 교회(James River Church·하나님의성회)를 이끄는 존 린델(John Lindell) 목사는 할로윈데이를 앞둔 주일 설교 시간에 "요가는 악령적인 힌두교에서 나온 것으로 사람들을 악령에 사로잡히게 한다"고 말했다. 제임스리버 교회는 2016년 기준 1만 명 이상의 성도가 등록된 초대형 교회다. 린델 목사는 "요가는 사람들의 의식을 낮추고 평화와 에너지, 신적 존재를 경험케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면서 "바로 이 점이 문제다. 이는 악령적인 힌두교에서 나온 요가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해 악령에 사로잡히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린델 목사는 '산자세'(Mountain pose)나 '하이런지'(Crescent Lunge), '전굴자세'(Forward Bend), '차투랑가'(Chaturanga) 등 요가의 기본자세를 예로 들면서 "이는 힌두교의 태양신인 '수리아(Surya)'를 경배하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요가를 운동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은 세례를 수중 에어로빅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면서 "요가는 기독교적 정신과 전혀 다르다. 기독교인들은 악령에 뿌리를 둔 요가를 가까이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의 주장을 놓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그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한 페이스북 독자는 "요가는 애초부터 인도의 힌두교적 요소에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기독교인이라면 요가를 피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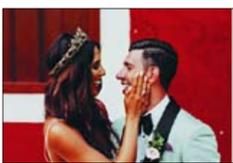
하지만 요가는 종교와 무관하며 단순한 스포츠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다. 한 요가 수련자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요가를 하지 말라는 건 황당한 이야기"라며 "오히려 요가를 열심히 하면 마음과 몸, 영혼이 맑아져 하나님께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린델 목사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의 기원에 대해 알게 되면 아마 충격을 받고 쓰러질 것"이라고 적었다.

인도 정부는 요가가 종교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인도 외교부는 2015년 4월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올린 공식 문서를 통해 "요가는 어떠한 특정 종교나 믿음, 커뮤니티와 무관하다"면서 "요가는 인간 내면의 웰빙을 위한 기술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회에는 요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지난해 총회에서 요가에 대해 '기원과 목적 자체가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적 행위'라고 힌두교인으로 되게 하는 수단"이라고 정의하고 마술과 함께 교회에서 요가를 금지한다는 보고를 받아들였다.

"동성결혼 기사는 왜 없나" 비난...호주 웨딩잡지 폐간

호주의 인기 웨딩잡지사가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결혼에 대한 기사를 실지 않았다가 결국 폐간됐다. 잡지사의 공동 창간인은 고백문



사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신념을 지키며 사랑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크리스천포스트는 19일 호주의 최고 웨딩잡지 중 한 곳인 '화이트매거진'(표지)이 동성결혼 기사 게재 논란 끝에 폐간됐다고 보도했다. 화이트매거진의 공동 창간인인 루크와 카를라 버넬 부부는 지난 17일 인터넷에 올린 고별 인사글에서

"12년간 사랑과 헌신에 초점을 맞춰 결혼을 축복하는 잡지를 펴냈지만 광고주들의 잇단 보이콧으로 더 이상 잡지를 발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버넬 부부는 지난해 12월 국민투표에서 동성결혼이 61.6%의 표를 얻으며 합법화되자 왜 잡지에 동성결혼 기사가 실리지 않는지 문제 삼는 의견이 잇따랐다고 털어놨다.

이어 "화이트매거진은 세속적인 출판물이지만 창간자인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면서 "우리는 사랑 이외에 어떠한 의제도 설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사람들을 좋고 나쁘으로 가르치는 그 어떤 사회·정치·법적인 논쟁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 신념은 그 어떤 판단도 배제하고 오직 사랑을 근간으로 삼는다"고 덧붙였다.

화이트매거진은 지난 8월 동성애자인 여성 사진작가 라라 호츠의 폭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동성결혼을 한 호츠는 지난 12월에 출연해 "화이트매거진은 성소수자 광고주와 기고자의 돈과 콘텐츠, 사진을 사용하면서 이성애자 커플만 소개한다"며 "14년간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화이트매거진 커버사진도 세 차례나 찍었지만 이런 일은 나를 끔찍이도 아프게 한다"고 비판했다. 또 "동성결혼을 다루려고 강요할 순 없지만 잡지의 방향성은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성결혼 찬성론자들은 이 잡지를 공격했다. 잡지 제작진과 광고주, 심지어 잡지에 소개됐던 부부들마저 갖은 모욕에 시달렸다. 논란이 시작된 이후 무려 7곳의 광고주가 광고를 신지 않았다. 결국 잡지는 독자 생존이 불가능해졌다.

버넬 부부는 "더 이상 논쟁을 겪고 싶지 않다"면서 "이런 일을 계기로 우리의 믿음을 성찰하고 있다"고 했다.

교계는 발끈했다. 영국 성공회 대주교인 글렌 데이비스는 결혼의 정의가 바뀌는 것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주에선 간혹 위법은 아니지만 우리 여전하듯 간통이 비도덕적이므로 나쁘다고 이야기한다"며 "법에 위하고 돼 있던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구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특히 결혼의 정의가 바뀌면서 다른 관점을 밝힐 수 없는 강압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며 "민주주의나 인간 존엄의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와 신념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꼭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글맘 차공파로 고쳐주는 '하나님의 정비소'

2011년 비가 추적 추적 내리던 어느 날 밤. 목회자였던 크리스 윌리엄스(50)는 텍사스 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105번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있었다. 그는 한 여성이 아이와 함께 고속도로 옆길을 터벅터벅 걷는 광경을 목격하고 깜짝 놀라 차를 세웠다. "비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두컴컴한 길을 걷고 계세요? 태워 드릴게요. 어서 타세요."



윌리엄스는 여성과 아이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교회 예배에 참석하려고 고속도로 옆길을 걸었다고 했다. 여성은 일터에 나갈 때 고속도로에서 히치하이크를 한 적도 있다고 했다. 자칫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녀는 여쩍 도리가 없었다.

그녀에게 차가 있었다. 하지만 수리할 돈이 없었다. 차를 정비소에 맡겼지만 한 달 동안이나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해 차를 찾지 못했다. 윌리엄스는 어릴 때부터 꿈꿨던 일을 실행해야 할 때가 왔다고 믿었다. "이제 무료로 차를 고쳐주는 정비소를 어떻게 열어야 할지 고민해야겠군!" 이후 몇 달간 윌리엄스는 자신의 물건을 팔거나 기부 캠페인을 벌여 돈을 모았다. 일부 돈을 빌리기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비소(God's Garage)'라는 비영리 단체를 세웠다.

하나님의 정비소에선 싱글맘이나 과부, 군대에 남편을 보내고 홀로 지내는 여성들에게 무료 자동차 수리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기부 받은 차를 말끔하게 고쳐 꼭 필요한 여성들에게 주기도 한다.

윌리엄스가 사는 텍사스의 교외 지역에선 차가 없으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차가 없으면 직장을 얻을 수 없어요. 직장이 없으면 돈이 없으니 차를 살 수 없죠. 정말 잔혹한 딜레마입니다."

윌리엄스는 또 일부 자동차 판매 딜러나 수리업체가 차를 잘 알지 못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비상식적인 돈을 뜯어낸다는 점도 강조했다.

2012년 이후 10여 명의 차 수리 전문 자원봉사자가 동참했다. 200대 이상의 차를 무료로 고쳐주었다. 기부 받아 수리한 뒤 꼭 필요한 여성들에게 건네준 자동차도 100대를 훌쩍 넘었다.

윌리엄스는 사실 차 수리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도 두 딸의 아버지이자 전직 목회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이 될 해야 할 것 같고 있었다.

"제 아버지도 목회자였어요. 그 전문 기술학교를 나온 기계공이었죠. 어릴 때 아버지가 차 수리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 아버지 거리에서 고장 난 차를 직접 고쳐주기도 하셨죠."

나이가 들면서 자신도 아버지처럼 올바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것이라고 항상 다짐했다. "그때 고속도로에서 그 여성을 보고 결심했죠. '나보다 더 차를 잘 고치는 사람들을 모아 차를 무료로 고쳐주는 방법을 찾아야겠군'이라고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정비소를 만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 하비 옌(67)씨는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아이들의 엄마가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걸 보는 게 얼마나 기쁘지 몰라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오래된 차를 고쳐서 그들에게 주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쁩니다. 행복의 눈물이 펄펄 쏟아지죠."

다섯 살 사내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셀비 그라멧(25)은 하나님의 정비소로부터 차를 선물 받고 인상이 달라졌다고 했다. "차가 없을 땐 직장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차 살 돈이 없어서 항상 버스를 탔죠. 하지만 이제 차를 선물 받고 어린이 박물관에 취직했어요. 아들이랑 해변도 가고 공원도 간답니다. 하나님의 정비소는 저와 제 아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라멧의 행복만 미소가 바로 윌리엄과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밤늦도록 정비소에서 일을 하는 이유다. 윌리엄은 세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에게 큰 자동차를 선물하던 날을 잊지 못한다.

"싱글맘에게 차 키를 건네는데 그녀의 어린 딸이 제 셔츠를 잡고 울기 시작하더군요. '아저씨 저 차가 저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 아이가 말하더군요. '저 차는요. 제가 마트에도 가고 학교에 가고 병원에도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라고 말이지. 정말 놀랍고 감동적인 경험이었어요. 그날 밤새도록 펄펄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정비소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지역지 휴스턴코니클스는 지난 20일 "기부금이 쌓이고 자원봉사자가 늘고 있다"면서 "하나님의 정비소는 이제 4개의 유압식 리프트를 갖추고 여러 대의 차를 한꺼번에 작업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또 최근 유타 주에 하나님의 정비소 2호점이 들어섰다고 전했다.

낙태·안락사가 보편적 인권?...

유엔인권위원회가 낙태와 의사에 의한 안락사 합법화를 전 세계 보편적 인권의 제로 삼으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정치뉴스 전문매체인 더데일리시그널은 최근 유엔인권위가 어떤 곳에서도 낙태를 범죄로 취급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초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초안 작성 책임자로 지난 8월 유엔 인권최고대표로 지명된 미셸 바첼레트(사진) 전 칠레 대통령이 지목됐다. 바첼레트 전 대통령은 칠레의 독재에 맞서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싸운 인물이다. 2002년 남미 최초의 여성 국방장관에 오른 뒤 2006년 칠레 첫 여성 대통령에 당선됐고 이후 2014년 대통령령에 재선돼 지난 3월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초안에는 젊은이들이 피임에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하고 낙태 이후 건강관리가 보장돼야 하며 낙태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 및 논쟁이 자제돼야 한다는 내

용 등이 포함돼 있다. 유엔인권위는 그동안 낙태가 절실히 필요한 여성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시애틀 헬턴이라는 아일랜드 여성에게 3만4000달러를 지급하고 낙태가 불법인 아일랜드를 떠나 영국에서 낙태수술을 받도록 도왔다.

초안에는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불치병이나 신체·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얻게 생을 마감하도록 의료기관이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유엔의 바람대로 미국에서는 안락사 허용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가정의학회는 지난 10월 이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더 이상 의사가 보조하는 자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 캘리포니아 플로리다도 오리건 버몬트와 와이 몬태나 워싱턴 주 등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반발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하버드 법대의 메리 앤 글렌던 교수는 "유엔인권위는 인권을 새로 만들어낸 권한이 없다"면서 "낙태가 인간의 기본 권리라는 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비영리 기독교단체인 TVNEXT는 "그들이 낙태에 반대하는 이유는 여성의 선택권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무고한 태아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데 있다"면서 "일부에서 낙태문제를 '여성의 권리 침해'로 몰아가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CA 산불 초동생 22명 구한 '천국에서 온 버스운전자'

기도와 용기로 22명의 초등학생을 캘리포니아의 대형 산불에서 구해낸 스쿨버스 운전사가 영웅으로 떠올랐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그를 '천국에서 온 버스운전자'라고 칭찬하고 있다.



CNN은 19일 캘리포니아 주 북부 파라다이스 소재 폰데로사 초등학교의 버스운전자인 케빈 맥케이(41)가 지난 8일 화재로 위험에 빠졌던 초등학생 22명과 여교사 2명 등을 극적으로 구했다고 소개했다.

맥케이는 사고 당일 산불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고 이른 아침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뒤 학교로 달려갔다. 학교는 어수선했다. 대다수 학부모들은 이미 자녀들을 데리고 대피한 상태였다. 하지만 학교 곳곳에는 여전히 여러 명의 어린 학생들이 남아 있었다. 맥케이는 교장과 상의 끝에 아이들을 모아 스쿨버스에 태워 탈출하기로 했다.

스쿨버스에는 22명의 어린 학생과 유치원 교사 애비 데이비스(29·여), 초등학교 2학년 교사 매리 루드윅(50·여) 등이 탔다. 탈출 당시엔 불길이 맹렬한 기세로 학교로 향했다. 루드윅은 "하늘이 어두컴컴해 무서웠다"면서 "마치 지구 종말을 앞둔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떠올렸다. 맥케이는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암흑의 제왕 사우론의 분거지인 '검은 땅(Mordor)'을 보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탈출은 쉽지 않았다. 차량들이 몰려 도로가 딱 막혀 있었다. 맥케이와 교사들은 버스를 버리고 걸어서 탈출해야 할 지를 고민했지만 버스에 남기로 했다. 가장 큰 문제는 화재로 인한 연기였다. 버스 안도 안전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질식될까 걱정됐다.

맥케이는 중간에 도로에서 차 문을 두드리는 여성을 태우기도 했다. 여성 역시 인근 초등학교 교사였다. 여교사는 탈출 도중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사고 차를 버려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스쿨버스 문을 두드렸다고 한다. 교사들은 차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길 기도했다.

꼬박 5시간의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야 맥케이는 스쿨버스를 학부모들이 기다리는 안전한 곳에 달 수 있었다. 데이비스의 남편은 아내를 구해준 맥케이를 꼭 껴안고 들어 올리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맥케이는 지난 18일 치코의 공원에서 만난 CNN 기자에게 "학생들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일은 버스 운전자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면서 "전 제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해했다. 데이비스와 루드윅은 "맥케이는 진짜 영웅"이라면서 "저런 천국에서 온 버스운전자 만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은 누구인가?

신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현상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속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놓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 성경이 가르치는 유일신으로 믿는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 종교의 씨앗으로 미신을 숭배하고 때로는 약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한다. 마음이 어두운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신을 찾으려는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서 참 지식을 갖고 경건에 이르기 위함이다. 인간 특유의 호기심이 발동되어 사변적인 논리를 전개함으로 인간의 교만과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겨놓으신 종교의 씨앗이 부패하였기에, 그 열매는 참 지식을 얻을 수 없다. 인간적 지식의 한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근거는, 그가 친히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그는 창조주이고 인간은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자연에는 하나님의 능력, 선, 그리고 지혜가 현저하게 드러나 있다. 우주만물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자연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본질을 볼 수 없으나, 하나님에 대하여 알만한 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철학자들이 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져왔다. 특히 고대 헬라 철학에서 형성된 인식론은 초대교회는 물론 중세교회, 그리고 현대교회까지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고대 인식론에서 발견되는 방법론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플라톤(Plato, 438/427BC - 348/347BC)의 사상, 다른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384-322)의 사상을 따르는 것이다.

플라톤주의의 핵심은 '이데아(Idea)' 설이다. 이는 외적 현상 또는 감각적 사물들로부터 독립하여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영원하면서 불변하는 실재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한다. 이데아는 세상 밖에 있으며, 모든 현실 세계의 인간과 모든 사물의 본질이다. 그 신은 눈으로 보지는 못한다. 오직 정신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대상이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설명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동굴 속에 있는 그림자 비유이다. 자유롭게 시선을 돌릴 수 없는 인간의 환경, 특히 뒤를 돌아볼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인간들은 동굴의 벽에 비친 그림자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할 수 밖에 없다. 즉, 인간은 능동적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주어진 것을 삼켜야만 한다.

이 세상을 동굴의 벽에 비친 그림자라고 이해한 플라톤과 달리, 그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온 세상이 신의 흔적들을 지닌 거대한 작품이라고 믿었다. 그는 불변하는 이데아는 불가능하다고 확신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특정한 것에서 발견되는 보편이 곧 사물의 본질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의 인식론은 인식의 주체인 인간이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습득하는 모

든 지식은 감각 경험에 근거한다고 확신했다. 즉 그는 온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사물 속에 내재하고 있는 보편적인 개념들이 증명과정을 통해서 판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귀납법적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다.

중세시대에 찾아온 변화

위에 소개된 두 가지 종류의 인식론 중 기독교의 진리를 확고히 증거 하는 도구

에는 그의 서적에 대한 주석이 많이 소개되었다. 그 당시 이슬람들이 헬라 철학에 익숙하였던 것은 그들이 7세기 이후 헬라 철학에 관심을 갖고 많은 서적을 아랍어로 번역하고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9세기에 이르러 이슬람 철학이 아비첸나(Avicenna, 980-1037)에 의하여 체계화 되었다.

아비첸나는 '자유'의 책과 '충족' 등의 백과사전을 저술하였으며, 그의 '의학적전'은 중세 대학에서 교과서로 사용되기도 하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같은 시대, 다른 관심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소개되면서, 전통적으로 플라톤의 인식론을 따랐던 서방교회에 변화가 찾아왔다. 그의 사상이 중세 교회 신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우리에게 중세 시대 최고의 신학자로 알려진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가 적극적으로

아퀴나스와 보나벤투라는 절대자의 존재를 증명하는 공동의 사명을 지니고 있었으나, 신학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달랐다. 특히 중세 교회에 소개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랐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퀴나스는 철학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에 신학을 접목시켰다. 이와 반대로 보나벤투라는 어거스틴이 지녔던 플라톤의 사상을 기반으로 초월적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스킨라 철학자답게 이성을 바탕으로 한 신학을 펼쳐나갔다. 왜냐하면, 보나벤투라도 아퀴나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확신하였지만, 이성의 빛이라는 신의 조명의 도움으로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결국 중세 교회의 신학 논쟁의 핵심은 지속적으로 방법론의 차이에 있었다. 그 중심에는 인식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커다란 명제가 놓여있었다.

아퀴나스는 위로부터의 빛을 거부하였다. 그 대신 인간에게 부여된 감각으로부터 시작하여 초월의 영역으로 나아간다. 영원하며 불변하는 이데아에 참여한다고 진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하여 감각적 인식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즉 아퀴나스는 인간에게 개념이 생기기 위하여 반드시 그 전에 인간의 의식이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각을 통과하지 않은 것은, 그 어느 것도 이성 속에 들어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퀴나스의 신학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아퀴나스는 신학과 철학을 구분하지 않았다면, 보나벤투라는 이 둘을 구별하려 하였다. 왜냐하면 신앙을 위해 이성이 존재한다고 믿는 전통을 버릴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영혼의 빛을 받지 못한 지성에게서 진리로 인도하는 기능을 찾아볼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러므로 그는 이성을 하급과 상급으로 나누었다.

하급이성이란, 외부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감각 작용에 의하여 인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각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상급이성은, 영혼이 자기 성찰에 의하여 정신적 차원에 존재하는 지식 자체인 하나님의 본질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나벤투라는 신학을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찾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세 가지의 길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간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자신이 직접 신을 체험하면서 인식하는 것이다. 아퀴나스는 이 세 가지 중, 첫 번째 길을 수용한 셈이다.

그러나 보나벤투라는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길에 몰두하다가, 결국 개인의 체험을 강조하는 신비주의 사상으로 빠지게 되었다. 다른 시대를 살았던 두 위대한 신학자가 지녔던 신학적 차이, 즉 새로 소개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신학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는 향후 중세 교회의 흐름을 바꾸어놓았다. 13세기 이후 로마가톨릭 교회의 중심에 아퀴나스의 신학이 놓이게 되었다.

covenantcho@yahoo.com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24)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고대 인식론은 플라톤(이데아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나뉘어 어거스틴은 플라톤 수용... 아비첸나는 능동지성 수동지성 구분

에 적합한 것은 어떤 것일까? 물론 플라톤의 사상이다.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은 불변하시며 영원하신 분이시다. 인간과 세상의 사물 넘어 계신 초월적 존재이다. 인간은 무한하신 그 분을 한계를 지닌 인간의 경험과 이성 안에 가둘 수 없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를 알 수 있다. 그러

었다. 무엇보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을 자신의 언어로 정리하였다. 그는 신은 다른 원인에 의하지 않은 필연적 존재로서, 오직 그만 완전하며 절대적인 선이다. 나아가서 그가 창조한 이 세상을 그의 선이 확장되고 연장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가 능동지성과 수동지성을 구분한 것이다. 즉, 인간

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을 수용하여 신학을 발전시킨 것이다.

아퀴나스는 13세기를 대표하는 스콜라 신학자로서, 전통적 기독교 교리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종합하였다. 그가 헬라 철학자의 사상을 철학에 수용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은총 교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 단지 스콜라 철학자들의 공통적으로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에 신학접목 발전시켜 보나벤투라는 개인 체험 강조하는 신비주의 사상으로 빠져

므로 신앙을 지니려면 자신 안에 있는 그 무엇을 찾는 일을 포기하는 동시에, 자신의 외부에 있는 절대자를 발견하고 의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어거스틴은 플라톤의 방법론을 그의 신학에 수용하였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하여 인간에게 주신 객관적 지식에 대한 인식을 신학과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향후 서방 기독교는 어거스틴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중세 시대에 변화가 찾아왔다. 십자군 운동과 함께 11세기부터 이슬람지역으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인 서방 교회에 소개되기 시작하여, 13세기

은 자신의 지성만으로 참된 지식을 소유할 수 없지만, 동시에 지성 활동을 통하여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12세기에 들어 이슬람 철학자 아베로에스(Averroes, 1126-1198)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을 집중하여 주해하면서 그의 사상을 널리 보급하였다. 그의 주장은 다른 이슬람 철학자들에 의해 공격을 당하였으나, 그는 꾸준히 난해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이 담긴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 이슬람 철학자들에 의하여 서방 교회 신학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전달되어 향후 스콜라철학 발전에

지녔던 고민, 즉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시도함에 있어서 새롭게 소개된 인식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3세기는 아퀴나스의 독무대가 아니었다. 그와 동시대 인물이었던 보나벤투라(Bonaventura, 1221-1274) 역시 로마가톨릭교회로부터 성인으로 추앙받은 탁월한 신학자이다. 그들은 나이도 비슷하였고, 학업과 파리대학에서의 교수사역에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두 사마의 깊은 우정을 나누었는데 대해서는 이렇다할 자료가 없지만 분명 그들은 교회를 위한 신학자로서 남다른 교류를 맺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A grid of church listings with photos of pastor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nominations like Galilee, Wagon, and others.



성경도 신앙(67) 교회와 국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예레미야 27장 5-7절에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옳은 데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삼기라 그의 땅의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삼기게 하리라.”

그 대목에 비추어보면, 그 심판을 직접 집행하는 분이 하나님 이시라고 말하면 안 된다. 오히려 거스리는 자들은 하나님께 그 목적을 위해 세우신 공적(civil) 권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다. 그 심판은 이 세상에 받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 심판 때 받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이다.

종들로서 우리의 적극적 선을 위하는 쪽으로 기능하고, 우리가 잘못된다면 우리를 징벌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4절의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

것이 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해짐을 기억해야 한다.

6) 진노와 양심으로 인한 복종

5절에서 그 논리가 아주 단순해진다. 이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할 두 가지 이유다. 첫째는 진노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복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진노를 피하기 위해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바울은 둘째로 더한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양심을 인하여 복종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5절)” 양심의 칼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는 권세들에 대한 예의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시립대학교 교수)

배우는 자세

지난달 말에 매년 가을에 여는 아주사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주최 제7차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었다. 지역사회 목회자와 신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목회자 컨퍼런스가 올해로 어느덧 일곱 해째 되었다. 처음 시작한 8년 전 동부에서 목회하던 바울 목사님과 대화에서 비롯되었다. 대부분의 담임목사님들이 목회일로 바빠서 마상 같은 교회를 섬기는 후배 사역자들을 멘토링 할 기회가 없다는 말을 하셨다. 신학교 교육만으로는 목회에 임할 때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시간을 내서 일주일에 한 번 인문학을 공부하는 교회의 한어권 부교역자들을 멘토링 하신다고 하셨다.

목회를 위해서는 평생학습이 필요한데 개인적인 학습도 가능하지만 일년에 한번이라도 주변의 목사님들이나 신학생이 모여 일정한 주제에 대해 함께 나누는 컨퍼런스를 준비하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 학교를 사랑하고 도와주시는 몇 분 목사님을 감사로 모시고 “설교”를 주제로 첫 시작을 했다.

좋은 목적을 갖고 시작했지만 첫 해에는 이 시대는 온라인으로 모든 정보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고 또 한인 밀집 지역인 LA지역에는 워낙 한국어로 열리는 세미나도 많아서 과연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얼마나 필요를 느끼고 참석할지 궁금했다. 감사하게도 첫 컨퍼런스에 120여명의 참석원이 모였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석하신 분들의 필요를 느낄 수 있어서 격려가 되었다.

모임 장소 예약을 위해서는 참석인원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따른 계약을 해야 하므로 주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잔치를 열었는데 손님이 안 올까 싶어 염려하는 마음이 없을 수 없다. 매년 준비할 때마다 감사 결정부터 참석인원 예상 등 소소한 일로 신경도 쓰였고 가끔씩은 전화까지 해서 한 특정강사를 지적하며 왜 그런 사람을 초청하느냐고 비난하는 이상한(?) 사람도 있어서 짜증이 나기도 했다. 그러잖아도 할 일이 많은데 계속적으로 컨퍼런스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들었다. 그럴 때마다 몇 교회가 힘을 합쳐서 모이면 우선 목회자들이 배우는 기회가 된다며 격려해주는 처음부터 함께 한 귀한 목사님 덕분에 힘을 얻고 7회까지 오게 되었다.

매해 모이는 분들의 필요파악을 위해 서베이를 계속적으로 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주제 선정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서베이 결과를 분석해보면 거의 모든 참석자들은 내용이 좋았고 다음에도 참석하겠다고 응답을 한다. 그러나 막상 컨퍼런스를 열 때가 다가오면 또 다시 내가 하나님만의 지하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시작되는 것 같다. 그래도 해마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모든 일을 지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도움이 되었다는 말에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첫해 이후로 한 문목사님의 배려로 재학생, 동문들에게는 참가비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줄 수 있었다. 점심식사에 해당하는 참가비지만 경제적으로 여유 없는 학생들이 혹사라도 그것도 부담될까 싶어서 도와주시는 귀한 마음이 감사할 뿐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참가비를 안 내도 되어서 그런지 막상 가장 많이 배워야 할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 컨퍼런스의 기회를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많이 참석도 안할 뿐더러 그 중 몇 학생은 별로 배우는 것이 없다고 불평하기도 한다.

나 개인적으로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강의를 맡아주시는 감사 목사님, 교수님들의 강의에 마음에 감동도 있고 깨달음도 있기에 별 배울 것이 없다는 학생들의 태도가 너무 뜻밖이다. 익은 벼가 머리를 숙인다는 옛말처럼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고 또 전공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감사 목사님, 교수님들은 서로의 강의를 통해 정말 많이 배웠다고 서로에게 감사의 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데 이제 겨우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런 좋은 배움의 기회를 고마워하지도, 귀히 여기지도 않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

현대교인들의 동향을 얘기한 한 감사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현대교인들은 신앙생활에 열심이 없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런 교인들을 목회할 신학교 학생들은 모든 일에 더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할 텐데 알팍한 지식이 교만을 불러온다면 그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을 것 같다.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했는데 모든 배움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주어지는 배움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아쉽기만 하다.

lpyun@apu.edu

권세 거스리면 하나님 거스리는 것... 심판의 권위자는 하나님 세금 납부는 국가의 권위와 권세 인식하기 때문이며 옳은 일

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4:17, 25, 32, 5:21). 이처럼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권세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5) 권세자에게 순종할 이유 로마서 13장 2절에서 바울은 두 번 부경문으로 표현된 말씀에서 그 이유를 제시한다. 먼저 첫째로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에서, “거스른다”는 말은 대적하여 전투대형을 만든다는 뜻이다.

부정적인 이유의 두 번째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은 스스로 저주를 자초할 것이라는 말씀하는데 그 저주는 심판을 의미한다. 여기서 심판의 주체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권위자들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 권세를 거스르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분명히 심판의 권위자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지상 권세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선고를 집행하신다고 설명해 나아가는

때 이유가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다스리는 자들과 권세자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권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한다. 왜 그런가? 바울 사도는 지금 권세 대목에 있어 그의 보편적인 논증을 말하고 있다.

관원들과 권세들은 우리가 복종하기만 하면 결코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선하다면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 왜 그런가? 권세와 국가는 악을 다스리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3절)” 라는 말씀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는 자리에 자신을 놓지만 않는다면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질문을 던진다.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너희의 의지와 바램이 아닌가? 그렇다면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오히려 징잔이 있으리라”(3절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네 번째 이유는 위에 있는 권세들, 국가는 실제로 하나님의

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사도는 여기서 적극적인 면에서와 소극적인 면의 양면에서의 요점을 말하고 있다.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자로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만일 누군가가 악을 행한다면 반드시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역)자(God's servant)”라는 단어가 두 번 나타나는데, 그 사자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으로 보응하는 자다.” 여기 이 사역자(하나님의 종)는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종을 말한다. 또 ‘칼’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이 지방총독을 임명할 때 총독에게 단검을 줌으로 그 기능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다.

황제가 그를 임명할 때는 “나를 대신하여 만일 필요하다면 쓰라”라고 말하며 단검을 선물한다. 이 칼은 그 사람에게 주신 권위와 권세를 나타낸다. 이것은 필요하다면 잘못된 행위에 대해 형벌로 목숨을 취하는 권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세자들은 모든

신 것이기 때문에 만일 그것을 거스르고 대적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스스로 거스르고 대적한 셈이 된 것이다.

7) 세금에 의한 사역자 직분

6절에서, 바울은 강력한 논증을 펼친다. 너희가 이 명령에 이미 순종하는 것 때문에 어떤 곤란에도 처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조세(공세)를 바치는 것이 이를 인함이다.” 이것은 세금 납부에 대한 문제이다. 왜 세금을 납부하는가? 국가의 권위와 권세를 인식하기 때문이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면 세금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일군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6절)” 그런데 여기 6절의 “일군(servants)”은 4절의 “사(역)자(ministers)”와 다르다. 4절에서는 행동을 보여주는 종의 개념을 뜻하지만, 6절은 공적인 일군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이곳의 강조점은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직무의 엄숙성과 존엄성에 주어져 있다.

younsklee@hotmail.com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h3>						<h4>뉴욕갯세미교회</h4>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p> <p>Tel. (516)520-2004, nygodg@yahoo.com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www.nygetsemane.org</p>	<h4>뉴욕목양장교회</h4> <p>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연구: 오후 08:00 금요회: 오후 08: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www.moakyn.org</p>	
<h4>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새벽기도회: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화,토)</p> <p>Tel. (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kccb.org</p>	<h4>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재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h4>뉴욕사백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lee@yahoo.com</p>	<h4>뉴욕새생명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9:30(토)</p> <p>Tel. (718)637-1470 45-50 162 St., #2/F,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 3부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www.kapcc.org</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http://www.cpcof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4>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h4> <p>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신)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18)7406-7577, (718)938-1777 188-12 73 Ave., Fresh Meadows, NY 11366 www.nyanitcn.com</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p>	<h4>리빙스톤교회</h4>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성경연구: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8:30 수요 찬양예배: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전 10:0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찬양예배 오후 8:0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4>주미전교회</h4> <p>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영양예배: 오후 5:00 주일학교: 오후 1:00</p> <p>Tel. (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me Rd., Manhasset, NY 11030</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org</p>	<h4>퀸즈한인교회</h4>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30 NCF영어: 오후 7:00</p> <p>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qrn.org</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9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입니다.</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3>						<h4>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h4> <p>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30(월-토) 금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기도회: 목요일예배 오후 7:30</p> <p>www.pcov.org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4>브라질 서울교회</h4> <p>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h4>브라질 새소망교회</h4> <p>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5:00 주일 6부예배: 오후 7:00</p> <p>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6-PARAÍ-340 PAULO-SP-BRASIL</p>	<h4>아르헨티나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주일학교: 오후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4>하와이 행락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4>하와이 행락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4>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양) 수요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p> <p>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h4>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h4> <p>선교사: 임한근 목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미주지역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6:00</p> <p>Tel. (52)333-3507-4111 E-mail: hanjkn@hanjkn.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ajara MEX(멕시코)</p>	



목회서신

가장 성숙한 감사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최고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플로리다 주에 당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흑인으로 1981년에 130세로 죽은 찰리 스미스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그에게 130년의 세월은 마치 실에 끼워놓은 진주알처럼 하나하나 모두 고통으로 점철된 세월이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으며, 주인의 천대와 멸시 속에 어릴 때 부모와 헤어져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온 외로운 나날이었습니다.

조금 자라자 미국 남부와 서부를 헤매며 노예로 이리저리 팔려 다니며 매 맞고 죽도록 일하는 모욕과 천대의 나날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 굶주리고 병들고 죽을 고비를 20번 이상 넘겼다고 합니다. 그토록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 스미스 씨는 임종을 며칠 앞두고 그를 방문한 스티븐스 목사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드립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매 맞고 고통당한 것도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운 노동생활을 한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는 저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천국가게 해주신 것과 130년 그 많은 고통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주님께서 한 번도 제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신 일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며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곁에 항상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는데 이 흑인 스미스 씨의 위로를 들으며 스티븐스 목사님은 기뻐하셨다. 그가 오려려 큰 감동을 받고 “이런 신앙은 세상 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신앙이다. 이런 신앙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앙이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감사는 성숙한 감사입니다. 그 역경과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에 감사하

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바로 미국의 건국정신이 된 청교도들의 감사였습니다.

17세기 초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떠났습니다. 102명이 조그만 범선인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110일 동안 목숨을 건 죽음의 항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1620년 12월 26일 110일 만에 플리머스 해변에 도착해서 감격해서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겨울 모진 한파와 굶주림으로 청교도들 절반인 44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해 봄에 그들에게 다가와 씨를 내민 와파노그 인디언들의 덕분에 그들은 씨를 뿌려 가을에 소량의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1621년 12월 13일 그들은 와파노그(Wampanoag) 인디언들을 불러 함께 하나님께 추수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그날 1인당 배급된 것은 옥수수 다섯 개였습니다. 그것으로 하루의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눈물의

감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였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온 미지의 땅에서 부모와 형제들,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철쭉 같은 어둔 밤하늘에 별을 헤아리다가 감사했습니다. 자기들을 도와준 와파노그 인디언과 함께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스런 미국의 시작은 이런 감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은 후 마지막에 자기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믿음과 감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세계 제일의 원조국가로 세계 최고의 선진국가인 오늘의 미국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이 청교도들의 첫 번 추수감사의 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한번 불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감독 이취임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박효성 감독 이임, 은희곤 감독 취임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감독 이취임 예배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 감독 이취임 예배가 지난 25일 열려 박효성 감독이 이임하고 은희곤 감독이 취임했다.

오후 7시 참사랑교회에서 열린 이취임식에서 3대 감독으로 추대된 은희곤 감독(뉴욕참사랑교회 담임)은 취임사에서 “①공로로운 연회 행정 수행 ②미래를 예견하며 오늘을 준비 ③미주감리교신학대학의 지속적인 발전 ④선거제도 개선” 등을 언급하고 연회 바깥의 연

대사역에 대해서는 “⑥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미국감리교와 동역 ⑥ 대외협력위원장으로서 웨슬리안인 연합” 등의 계획을 밝혔다(인터뷰: 본지 1709호에 게재).

박효성 감독은 이임사에서 “연회 감독에게 주어지는 성직으로서의 직임과 장성상 직무는 그 이름만큼 영예롭거나 거룩하지 않다”며 교회 담임으로서 목회와 연회 수장으로 행정치리가 녹록지 않음을 언급하며 기도를 당부하고 자신은 목회

44년을 마치고 은퇴한다고 밝혔다.

1부 감사예배는 이철운 목사 인도로 안성국 목사가 기도하고, 전 서울연회감독 김종훈 목사가 “요셉과 같은 감독”(창41:37-4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2부 이취임예식은 이근우 목사(연회총무) 사회로 취임감독 소개, 이임찬하, 취임 축하 영상 메시지 전명구 감독회장, 취임감독 선서 및 팬던트 수여 전용재 전 감독회장, 축하 환경진 문현호 집사(참사랑교회), 이임사 박효성 감독, 이임감독 찬하사 전용재 감독, 공로패, 예물 화환증정 은희곤 감독, 취임사 은희곤 감독, 축하 뉴욕동지방 교역자부부, 취임감독 축하 정희수 UMC 위스콘신연회 감독, 축하 돈 라이언 웹스테드시장, 공로패, 예물 화환증정 박효성 감독, 축하 박정화 교수, 광고 금동필 장로, 축도 이 후근 목사 순서로 진행했다.

신임 은희곤 감독은 지난 5월 연회에서 감독으로 추대되고, 지난 10월 제 33회 총회를 기점으로 11월 1일부터 감독 직무를 시작했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에게는 은희곤 감독이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에 연재해온 “시론”들을 모아 발행한 칼럼집 “카무카무 우에”를 배부했다.

(정리:유원정 기자)



내년 2월 UMC 특별총회를 앞두고 열린 KUMC미래포럼에서 발제자들이 발제하고 있다

내년 2월 총회위해 전심으로 기도하자

KUMC 미래포럼...동성에 등 총회이슈 점검

‘2019년 2월 특별총회 이후를 위한’ 한인연합감리교회 미래포럼이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김낙인 목사)에서 11월 25일 오후 4시에 열렸다.

정영희 목사(포럼위원장, 드림교회) 사회로 진행된 포럼은 장학순 목사(한인목회강화협의회 사무총장), 이학준 박사(풀러신학교 기독교윤리학과장, 석좌교수), 전영호 박사(세인트폴 신학교 조직신학교수), 류택덕 목사(한인총회장)이 패널로 나서 발제했다.

정영희 목사는 “연합감리교회(UMC) 총회가 세인트루이스에서 내년 2월에 연다. UMC가 고민해온 성정체성에 대해 새로운 정의가 내리게 될 것”이라 말하며 “총회결과를 미리 염려하면서 탈퇴하는 자들

이 나오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이 시대는 독불장군의 시대가 아니다. UMC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 신앙이 키워졌다. 그래서 사랑하며 가야한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오늘은 답을 듣자고 모인 것이 아니다. 교수님과 학자들 통해 말씀을 듣고 우리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포럼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장학순 목사는 “내년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UMC 총회가 열린다. 이번 총회는 동성에 이슈와 재정, 그리고 교리장정과 감독제 파송 등 여러 이슈가 전에 보지 못한 결과를 갖게 될 것”이라 말했다.

장 목사는 “현재 UMC내 상징이

된 헌의안은 스컷재 트렌디서널리스트 모델로 기존 교리장정을 유지 및 강화하는 보수적인 안이다. 이 안은 교리장정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가 있으면 제재 조치하는 법규를 추가하는 안이다. 그러나 일부 서부, 중북부, 동부의 연회에서는 이에 대해 불복종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스컷재는 원칙치 모델로 UMC 교회 안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룹과 반대하는 그룹이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두 그룹의 공존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각 연회와 개교회에서 어떠한 입장을 고수 하더라도 허용하지는 안이다. 모양새로는 중도적이고 중립적이지만 UMC에서 볼 때 상당한 진보적 범안이다. 스컷재는 커넥셔널 모델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룹, 허용하는 그룹, 그리고 양쪽을 다 아우르는 그룹으로 나뉘어 UMC라는 한 우산 안에 두며 공존하는 안이다. 이 안은 결국 UMC 헌법을 고치는 수단이다. UMC 헌법이 개정되면 대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며 가장 통과가 어려운 안건”이라 설명했다.

장 목사는 “내년 총회는 첫째 안건과 둘째 안건 중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두 번째 안건이 불결된 현재의 교리장정을 인정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벌써 10개가 넘는 연회가 전통적 모델이 채택되면 복종하지 않겠다고 한다.

(16면으로 계속)



감성인 콘서트가 락한인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재능기부로 소통의 장 마련

‘감성 in’ 주최 ‘Give Love’ 콘서트 성황

크리스천문화모임 ‘감성 in’(대표 김충만 목사)이 주최한 ‘Give Love’ 콘서트가 지난 11월 18일 에 나하임 소재 The rock 한인교회(담임 박정기 목사)에서 열렸다.

‘Give Love’ 콘서트는 간접적인 문화사역의 일환으로 음악을 통해 신자나 불신자 젊은 세대들과의 만

남과 소통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콘서트는 재능을 가진 젊은 세대들이 음향, 음악 등의 각자의 재능기부를 통해 이뤄졌다.

김충만 목사는 “사람마다 감성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감성을 갖고 계셨다”며 “똑같은 노래와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은 감성을 나눌 수 있기에 ‘감성 in’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말했다.

이날 콘서트는 젊은이들의 상징적 언어인 ‘사랑’, ‘꿈’ 등을 소통의 주제로 제시하며 1부 순서는 △자기소개 시간 △슬라이드의 시간 △작 사랑의 시간 프로그램과 ‘생각나는 사람과 글’ 등을 함께 나누며 참석자들의 여색함을 깨는 아이스브레이크 형식으로 진행했다.

2부는 △만남 △이별 △사랑 등의 주제로 젊은 시절 겪게 되는 고민과 아픔, 희망과 좌절을 등을 함께 노래로 화답하며 신앙 안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박정기 목사, 김충만 목사, 김경록 형제가 공동 기획했으며, 사회 김요셉 전도사, 피아노 김경복, 남자 솔로 박재현 등이 각각 담당했다.

(박준호 기자)



크리스천헤럴드 창립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크리스천헤럴드 창간 41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후원의 밤

크리스천헤럴드(발행인 양준호) 창간 41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후원의 밤 행사가 지난 11월 13일 오

후 6시30분 또감사선교교회(담임 최경욱 목사)에서 열렸다.

윤우경 총괄본부장 사회로 시작

(박준호 기자)



뉴저지교협 회장 및 임실행위원 시무 및 이취임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섬김으로 하나 되는 교협” 제32회기 출범

뉴저지교협 회장, 임실행위 시무 및 이취임 예배

제 32회기 뉴저지교협이 지난 19일 회장 및 임실행위원 시무에 배 및 이취임예배를 드리고 출범했다.

“섬김으로 하나되는 교협”이라는 표어를 세운 32회기 교협회장 홍인석 목사(교회)는 “감당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사명이라 생각한다”며 “먼저,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 섬길 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둘째, 지역선교 단체를 많이 섬긴 31회기 사역을 이어 나가겠다. 셋째, 차세대를 살리는 것이 지역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한두 명이라도 교회내 차세대를 확고히 세운다면 세대를 연결하고 부흥을 가져오게 된다”고 말하고 기도와 후원을 당부했다.

이임하는 윤영호 목사(교회)는 “교협 일은 무상으로 죽도록 봉사하는 직”이라며 “(자신의) 전 회기였

던 30회기가 회기 후에도 계속 돕는 좋은 전통을 만들었다. 31회기도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새 회기 출발을 격려했다.

이날 설교는 유재도 목사(증경회장, 땅끝교회 원로)가 “성령으로 하나되어”(행2:16-17)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교협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하라, 둘째 성령의 은혜를 모든 교회와 종족에게 나눠주라 셋째,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의 일과 교협 일을 해나가라”고 전했다.

살림목사회 신임회장에 송성섭 목사 선출

살림한인목사회(회장 나성균 목사)가 지난 12일 남부교회(담임 송성섭 목사)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새 임원진을 구성했다.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송성섭 목사 △부회장: 김기영 목사 △총무, 서기: 최유찬 목사 △회계: 이현석 목사.

(기사제공: 살림목사회)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권사선교합창단 제 17회 정기연주회

뉴욕권사선교합창단(단장 이은숙 권사) 제 17회 정기연주회가 불우이웃돕기 선교기금 모금을 목적으로 "그가 곧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12월 9일(주일) 오후 6시 하크네시아교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열렸다.

▲문의: (917)658-3181 양재원 지휘자

KCBN 개국 29주년 감사의 밤

미주기독교방송국(KCBN, 사장 윤세웅 목사) 개국 29주년 감사의 밤이 12월 10일(월) 오후 6시 플러스 대동연회장에서 열렸다. 참석자는 예약이 필요하다.

▲문의: (718)463-1700

교육전도사 청빙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가 새로운 담임목사와 함께 차세대 사역을 담당할 파트타임 교육 전도사(유치부 담당)를 청빙한다. 자격은 유치부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진 신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 영어와 한국어 가능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이력서, 자기 소개서, 추천서 1통. 서류마감일은 12월 31일까지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문의: NewYorkNYPC@gmail.com

이규현 박사의 뼈와 건강 세미나

캐나다 뼈와건강연구소 소장 이규현 박사의 뼈와 건강 세미나가 '세포에 칼슘레벨이 낮아지면 왜 암이 생길까?' 주제로 뉴욕과 뉴저지에서 열린다. 일정은 12월 3일(월) 오후 8시 뉴저지 순복음교회(담임 이정환 목사) 12월 4일(화) 오후 8시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 수강료는 무료이며 세미나 참석자 중 사전 등록자에 한해 끝말도를 측정할 수 있고, 이규현 박사의 신간 "SAC칼슘의 혁명"을 원가(50%할인)로 보급한다. 강의 신청대상은 골다공증, 퇴행성관절염, 암환자로서 목회자와 선교사를 우선 접수한다. 선착순 각 지역 40명. 마라내츄럴뉴욕이 주관하고 씨존이 후원한다.

▲문의: (917)291-3800, (718)414-4848

스마트폰 특별강의

스마트폰 특별강의가 12월 1일(토)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10분까지 뉴욕기독교방송(대표 문석진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윤승준(재미있는IT 대표)로 준비물은 스마트폰+노트북이나 태블릿. 수강료는 없으나 등록비 10달러는 뉴욕기독교방송 선교후원비로 사용되며 등록자에 한해 수강이 가능하다.

▲문의: (917)291-3800, (718)414-4848

제 3회 크리스마스 오픈 콘서트

뉴욕셋째마네교회(담임 이지용 목사)가 주최하는 제 3회 크리스마스 오픈 콘서트가 장학기증을 목적으로 12월 9일(주) 오후 5시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문의: (516)520-2004, (917)693-2763

이노비 12월 공연일정

이노비 12월 공연일정은 다음과 같다. △맨해튼 어퍼이스트 너싱홈(구 드윗 양로원): 14일(금) 오후 3시, 양로원 거주 노인 70명 대상 △코코칼라엔서비스센터(플러싱지역 한인 장애인) 15일(토) 오후 1시, 한인 장애인과 봉사자 40명 대상, 프라미스교회 △할렘 소울세이빙 스테이션: 18일(화) 정오, 저소득층 주민과 홀리스 50여명 대상 △뉴저지말일: 22일(토) 오후 1시, 한인 장애인과 가족, 봉사자 100여명 대상.

▲문의: (212)239-4438



지난 21일 뉴욕만나교회에서 열린 제 32회 찬양의 밤을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퀸즈장로교회 이어 만나교회에서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제32회 찬양의 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가 지난 21일 제 32회 찬양의 밤 세 번째 프로그램을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었다.

1부 예배는 이종원 목사(총무처장) 인도로 최진권 학우 기도 후, 성경봉독 김영미 학우, 찬양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합창단, 말씀은 김성국 목사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시100:1-5)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2부 찬양은 신학교합창단(지휘 윤원상 교수)의 찬양으로 시작해 남성중창, 특별찬양(김스카이, 퀸즈장로교회), 여성중창, 합창, 봉헌기도, 광고 허윤준 목사(학감), 축도 정관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찬양의 밤은 학생들의 장학기금을 위해 매

년 열린다. 올해는 11월 7일 뉴욕성실장로교회(담임 이길호 목사, 본지 1707호 10면 게재)를 시작으로, 14일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열린바 있다.

(유원정 기자)



뉴욕성실장로교회에서 열린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장학기금원찬양의 밤을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새 회장 박태규 목사, 부회장 이준성 목사 제 47회기 뉴욕한인목사회 정기총회

제 47회기 뉴욕한인목사회가 지난 26일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박태규 목사, 부회장에 이준성 목사를 선출했다.

오전 10시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린 총회에서 회장으로 추대된 부회장 박태규 목사(뉴욕새침장로교회 담임)는 "목사회 참여율을 높이고 존경받는 목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미나와 친목 등을 통해 정체성 회복에도 노력하며 또한 기도운동과 전도운동도 펼치겠다"고 당선 인사를 했다.

3차 투표 끝에 부회장으로 선출된 이준성 목사(뉴욕양무리교회 담임)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며 "선후배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진실한 목회자로 회로에 락을 같이 하겠다"고 인사했다.

47회기 총회는 3명의 부회장 후보가 입후보해 경선을 벌임으로, 회원들의 참석도가 여느 때보다 높았다. 116명이 투표에 임했다.

기호1 김희복 목사(뉴욕주천양교회), 기호2 이준성 목사, 기호3 김진화 목사(미래비전교회)가 1차 투표에서 37, 47, 32표를 각각 얻었으며, 2차 투표에서는 32, 55, 29표를 각각 얻었다.



이광희 목사 성역40주년 감사 은퇴예배 미니콘서트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이광희 목사 성역40주년 감사 은퇴예배 제 5집 작곡 출판기념 미니콘서트 열어

이광희 목사(할렘루아뉴욕교회)가 교회, 성역 40주년을 맞아 제 5집 작곡 출판기념 감사 및 은퇴예배, 미니콘서트를 열었다.

지난 15일 저녁 첫눈이 내려 교통 혼잡을 이뤘지만 이광희 목사는 "하늘에서 큰 축복이 쏟아졌다"며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가장 큰 도움을 주신 김남수 목사(프라미스교회 원로)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 "은퇴 후 부흥사로 작곡가로 남은 여생을 살겠다"며 "현재 토마스 선교사 일대기 오페라와 시편 작곡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찬 후 진행된 행사는 이광희 목사 부인이며 할렘루아뉴욕교회 담임인 이미선 목사 사회로 시작돼, 기도 허영행 목사, 설교 김남수 목사, 축사 이남선 목사(남독 장경아 아나운서), 축도 김영식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남수 목사는 시편 112편 1-6절을 본문으로 읽은 날 독일에서 지휘자 이광희 목사와 만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연을 언급하며 "기념되는 생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우리에게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두 길 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



제 47회기 뉴욕한인목사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제 47회기 뉴욕한인목사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이에 김진화 목사가 기권을 선언하며 "내년"을 당부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사기도 했다.

3차 투표는 김희복 목사 39표, 이준성 목사 65표를 얻어 이준성 목사가 당선됐다.

감사는 박드보라, 정재현, 안승백

목사가 선임됐다.

이날 회계 및 감사보고에서 총 수입 99,401.49달러, 총지출 97,957.10달러, 잔액 1,444.39달러로 보고됐다.

회장 문석호 목사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탐방으로 인해 예산이 많아졌다"며 "실제로는 2만여 달러 정도가 목사회 예산이었다"고 밝혔다.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 제 3기 시무예배 및 회장 이취임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표어로 글로벌뉴욕여목연 제3기 시무 및 회장 이취임예배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 제 3기 시무예배 및 회장 이취임예배가 지난 21일 오전 10시30분 뉴욕순복음연합교회에서 열렸다.

취임하는 회장 심화자 목사는 "회장직을 맡고 할 수 있는 건 기도 뿐이었다"며 "기도 중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잠16:3)는 말씀을 받았다.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비전을 갖고 어머니기도회, 목회정보 나누기 등 장자 역할을 하는 뉴욕지부가 되도록 섬기겠다"고 말했다.

이임하는 권케더린 목사는 "이 임사를 준비하며 2년전 글로벌여목연을 시작하면서 여성들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개발하겠다는 취임사가 생각나며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 떠올랐다. 지난 2년은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와 기적이었다"며 미리암의 찬양을 대신하는 자작 찬송시를 낭송했다.

최근선 목사 사회로 마오셉 전도사의 찬양으로 시작된 1부 예배는 기도 오명의 목사, 특별찬양 글로벌 이종찬, 말씀 전희수 목사, 헌금특송 남상보 집사, 헌금기도 장만자 목사, 축도 윤세웅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글로벌연합회장 전희수 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물제를 소망하며"(여호와께 맡겨라)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지난 2년 동안

다. 문 목사는 "47회기 총회를 맞아 '소명의 충실함을 돕는 목사회', '친목과 연합으로 하나 되는 목사회' 등의 주제를 갖고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감사하기도 하고 미흡함도 많았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수고한 임원들에게 감사한다. 다음 회기에 변함없는 참여와 협력으로 성숙한 목사회로 발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46회기 뉴욕목사회는 △회기 감사예배 및 이취임식 △신년기도회 △3회의 임실행위원회 △종교개혁자 탐방과 이를 위한 공개세미나 △5회의 세미나 △부활절 연합찬양제 △2회의 체육대회 △장학금 전달 등의 행사를 가졌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박태규 목사 인도로 기도 정순원 목사, 성경봉독 김정숙 목사, 설교 이재덕 목사, 축도 장석진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재덕 목사는 "이사야의 사명"(사6:1-8)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아와 성령을 체험해야 한다"며 "본문의 하나님과 이사야의 대화 목사회 소명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원정 기자)

세계 10개 지역에 연합회와 기도 운동을 하게 하였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물제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믿지 못하고 내 능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①믿음으로 맡기라 ②말씀에 순종하며 맡기라 ③기도로 맡기라"고 강조했다.

2부 이취임식에서는 전희수 목사와 권케더린 목사에게 감사패 및 꽃다발을 증정했으며, 축사는 정순원 뉴욕교협회장, 양승호 뉴욕교협증경회장, 박태규 뉴욕목사회부회장, 권민은 김경희 연합신학회장 이 했다.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 사역은 다음과 같다.

△중보기도: 매일 오후 1시 은혜와진리교회(담임 심화자 목사) △어머니기도회: 매일 오전 10시30분 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 △글로벌합창단 연습: 매일 중보기도, 어머니기도회 사역 후.

글로벌여목연 제 3기 조직은 △회장 심화자 △부회장 최근선 △특별위원 전희수 권케더린 △서기 안경순 △회계 김사라 △감사 조문자 △자문위원 오명의 △사역총무: 중보기도회 나명자, 어머니기도회 최근선, 선교 김희숙, 친교 이진아, 상담 정양숙, 교육 정인숙, 글로벌합창단 안경순 김사라(이상 목사).

(유원정 기자)



패밀리터치 죽음준비학교 수료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패밀리터치 "죽음준비학교" 30기, 31기 수료식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 "죽음준비학교"가 제 30기, 31기를 마쳤다. 제 30기는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패밀리터치 리틀페리 오피스에서, 31기는 10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잔양교회에서 진행됐다.

유인장과 버킷 리스트 작성을 배우며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내

세에 대한 믿음과 관계 회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죽음준비학교는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참여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남가주한인목사회 신임회장에 김관진 목사

제 52회 정기총회, “혼신의 힘 다해 열심히 섬기겠다”



남가주 한인목사회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샘신 목사)는 제 52회 총회를 지난 19일 오전 10시 오직예수선교교회(담임 샘신 목사)에서 열고 신임회장에 수석부회장 김관진 목사를 선출했다.

샘신 회장이 사퇴로 시작된 총회는 샘신 회장이 개회 선언했으며 전회의록 낭독, 활동보고, 감사보고 및 회계보고, 공천위원회보고 후,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신임회장 김관진 목사는 “참으로 어깨가 무겁다. 그동안 수고하신 남

가주한인목사회 회장단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신임회장으로서는 남가주목사회를 위해 미력하나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칙수정위원회 보고와 안건토의를 한 후, 회의록은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추후 낭독하기로 하고 폐회를 선언했다.

한편 수석부회장 김관진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제1부 예배에서 부회장 이상권 목사가 대표기도를 한 후, 감사 김재중 목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행13:22)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으며 경증회장 엄규서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다민족기도대회 평가회에서 한기홍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밀알 사랑의교실 봉사자들과 관계자들이 대통령봉사상 시상식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최에스더 자매 등 총 112명 수상

밀알 사랑의교실 대통령 봉사상 시상식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가 주최한 밀알 사랑의교실 대통령 봉사상 시상식이 지난 11월 17일 오전 10시 한길교회(담임 박진설 목사)에서 열려 최에스더 자매(OC 사랑의교실)를 비롯한 총 112명에게 대통령봉사상이 수여됐다.

이종희 목사는 “사랑의교실과 사랑의캠프 때 봉사한 것이 대학진학과 사회진출 시 삶으로 몸으로 실천되는 봉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랑의교실(Class Agape)은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

며 수업료 및 기타 부대비용이 전액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00년 8월 5일 남가주 오렌지카운티(OC) 지역에서 처음 시작되어 현재 전 세계 밀알선교단이 세워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핵심 사역으로 자리 잡아 발달장애인들의 재활과 교육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미주밀알 선교단 산하 15개 지단, 2개 지소에서 사랑교실을 통해 수많은 발달장애 참가자들과 교사, 봉사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을 나누고 있다.

(박준호 기자)



은혜한인교회 추수감사절 부흥회에서 이영환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강사 이영환 목사 “축복의 비밀” 설교

은혜한인교회 추수감사절 부흥회 및 장자권 세미나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추수감사절 부흥회를 지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했다.

18일 오전 9시20분에 열린 마지막 날 집회에서 강사로 나선 이영환 목사(대전한밭제일교회)는 ‘추수감사절에 담긴 축복의 비밀’(신 16:13-17)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행하는 것이 축복”이라며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세절만 믿고 행해도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3색서폰 연주자 정창균 목사 간증집회

해돋는교회, 정태미 사모 찬양도 함께

세계유일의 3색서폰 연주자인 정창균 목사와 정태미 사모 찬양단 증집회가 해돋는교회(담임 정갑식 목사)에서 지난 11월 18일 오후 1시30분에 열렸다.

‘헛되고 헛된 삶’(전1:1-4)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정창균 목사는 한국에서 최고의 색소폰 연주인의 삶을 살다 미국에 이민 온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목사로 서원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삶에 만족하며 살다 고난을 당한 후 회개하고 목회자가 된 이야기를 담백하게 풀어갔다.

정창균 목사는 “성경에는 주께서

교회를 세우면 복 준다라는 말씀은 없다”며 “전도하기가 두려울 때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1년에 1명만 전도한다면 교회당은 어느새 빈자리가 없게 된다. 전도하면 영혼이 살핀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삶이 다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창균 목사는 ‘내가 주를 처음만난 날’, ‘세 개의 나팔’ 등을 불렀으며 정태미 사모가 ‘주님 손 꼭잡고 가소서’, ‘사랑의 송가’ 등을 불렀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월드미션대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세미나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상담심리대학원에서는 ‘트라우마와 상담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상담세미나를 개최한다. 강사는 탈북신학교 교수 Sunny Song 임상심리학 박사이며 일정은 11일(화) 오전 10시, 월드미션대학교 오렌지카운티 캠퍼스(7342 Orangethorpe Ave, Ste A 103, Buena Park)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목회자, 사역자, 일반인 등 상담에 관심 있는 분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문의: (213)388-1000, admissions@wmu.edu

아주사 송년의 밤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총동문회(회장 승광철 목사)가 주최하는 아주사 송년의 밤 행사가 12월 10일(월) 오후 6시 가든스윗 호텔에서 열린다.

▲문의: (661)618-9392

2018년 서울신학대 남가주 총동문회 송년의 밤

2018년 서울신학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회장 김기동 목사) 송년의 밤 행사가 11일(화) 오후 6시 가든스윗호텔에서 열린다.

▲문의: (909)677-0028



아메리카한인재단 행사

대통령봉사상, 조셉 호 리 등 4명 수상

아메리카 한인연합재단 총회 및 전국대회

아메리카 한인연합재단 총회(회장 이우호 목사) 및 전국대회가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에나 파크에 있는 홀리데이 인에서 열렸다.

첫째 날 집회는 이우호 목사 사회로 참가자 한 사람 한사람 소개를 하고 김동욱 목사가 오픈기도를 하고, 조영규 전의원과 임용근 의원이 각각 환영사를 했다.

이어서 김영찬 목사가 ‘나는 누구인가’(사43: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각 지역보고 및 신년 사업계획 등을 마무리했다.

둘째 날은 이우호 목사 사회로 국민의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등을 하고 김정우 목사가 대표 기

도, 내빈 소개에 이어 임용근 전 의원의 환영사, 주일엽 교수의 바이올린 연주, Virginia Vaughn 부에나 파크 시장과 조영규 전 의원과 이 상명 총장이 각각 축사했다.

이어진 대통령 봉사상 시상식에서는 Joseph ho Lee, Joshua Lee, Kim chang ho 목사, Hyun Woo Bae 등 4명이 수상했다.

이어서 남우석, 윤요한 정태형 군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미국과 한국을 위해 통성기도 한 후 최학량 목사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한미연합회 신임대표 송유니스 변호사 임명

한미연합회(KAC) 이사회는 만장일치의 투표를 통해 Eunice Hur Song, Esq.(송유니스 변호사)를 새 대표로 선임해 지난 11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송 변호사는 오랫동안 한미연합회 조직 내에서 활동했다. 2008년에 사우스웨스턴 로스쿨의 SCALE(Southwestern Conceptual Approach to Legal Education) 특수과정에서 공부하던 중 법대생을 위한 멘토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미연합회에 대해 열정을 가졌으며, 2008년 초 4.29중재조정센터(4.29 Alternative Dispute Center)의 중재자로서 한미연합회에서 자원 봉사를 시작했다. 2012년에는 4.29 중재조정센터의 센터장이 돼 사건 처리율을 대폭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냈다.

한미연합회 측은 “계속해서 미주 한인사회의 목소리가 될 것”이라며 “변화는 먼저 개인 한사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인지해 점차적으로 미주 한인들에게 시민권의 권리와 투표권을 교육해 지역 사회의 책임과 소유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미주 한인사회의 시민의 권리와 민권을 장려하는 한미연합회의 전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일을 위해 한미연합회 임직원과 새로 선출된 임원인 수지 오 이사장을 위시해 게렛리 총무, 다니엘 리 회계, 로버트 리 안 위원, 찰리 김, 토니 김, 앤드류 리, 이영직 박사, 제임스 산타 마리아가 함께 하는 총 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동참하게 된다.

(기사제공: 한미연합회)



정창균 목사 정태미 사모 찬양간증집회에서 정창균 목사가 3색서폰 연주를 하고 있다

중간선거 만족, 참여도 부족 아쉬움

다민족연합기도대회 평가회 및 결산보고

미국의 영적 부흥과 대각성을 위한 ‘2018 다민족 연합기도대회’를 마치고 지난 16일 애나하임 한 뷔페식당에서 다민족연합기도대회 대표대회장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 준비위원장 강순영 목사(JAMA대표)를 비롯 대회 관계자들 및 목회자들이 모여 평가회 및 결산보고를 가졌다.

이번 다민족연합기도대회와 관련된 집행부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한인들이 미국 시민으로서 강한 주인정신을 갖고 해마다 미국을 위해 다민족연합기도대회를 조직해 기도할 수 있게 한 것과 올해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특별기도회를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선거 결과(바람직한 균형)를 주신 것도 감사하다. △은혜한인교회의 전폭적인 지원(장소 제공, 봉사, 재정지원, 성가대 참여)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기도 감사로, 준비위원으로 섬겨주신 분들

과 해마다 재정지원을 해주시는 후원교회들 광고 후원 단체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교회 행사들이 겹치고, 월드시리즈가 동시에 열리고, 국가적 위기상황도 있었지만 점점 기도대회 참여도가 약해지고 있다.

△내년도에는 연초에 기도하는 중대형교회들의 공동 주인정신과 적극 참여를 다짐받고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남가주 여러 지역의 교회협의회, 목사회 등 여러 주요 기독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준비위원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어려움 중의 하나였다. △시간배당이 잘 지켜지지 않은 점도 옥에 티였다.

한편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은 결산보고를 통해 총수입, 34,295.06달러, 총지출, 31,227.73달러, 잔액, 3,673.33달러라고 보고했다.

(박준호 기자)



LA기운실 주최 제20회 건강교회포럼과 사회봉사상 시상식이 CIU 강당에서 열렸다

‘한인교회 목사안수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

LA기운실 건강포럼 및 사회봉사상 시상식

LA기독교윤리실천운동(대표 박문규 박사)은 지난 15일 캘리포니아 인터내셔널대학교에서 ‘한인교회 목사안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제 20회 건강교회 포럼을 개최했다.

패널 토론자로 나선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 전 총장)는 “교인으로서 있었던 어느 집사가 신학을 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목사안수를 받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다. 신학공부와 목사안수는 담임목회자나 노회 총회 등 교단 차원에서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비인간신학 교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성철 장로(버뱅크세길교회)는 “오늘날의 교회 문제는 목회자와 장로의 공동책임이다. 이들이 회개와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 사회자로 나선 박준호 기자(미주크리스천신문)는 “신학 교육, 목회자 과정은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중요하다. 교회와 목회자의 밝은 면을 볼 수 있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 분별력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한편 발제자로 나선 현수일 목사는 ‘한인교회 목사안수 무엇이 문제인가?(부제: 소명, 자질, 그리고 안수과정 측면에서)’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지만 주제를 숙지하지 못한 내용을 발표해 패널로 참석한 송정명 목사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날 포럼에 앞서 열린 제 8회 LA기운실 사회봉사상 시상식은 큰사랑스러운교회(대표 김윤년 목사)와 스트리트 컴퍼니(대표 제시 이)에게 수여됐다.

큰사랑스러운교회는 한인 재소자들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심어주기 위한 사역을 하고 있으며, 스트리트 컴퍼니는 랭캐스터에 위치한 공원에서 음식을 나누며 지역 노숙인들과 관계를 쌓고, 노숙인들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 노숙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한인 1.5-2세들이 만든 단체다.

(박준호 기자)

“청교도운동 같은 신앙회복운동으로 시작”

합동신대 ‘청교도 대강좌’

무너진 한국교회의 도덕성 회복은 도덕재무장운동이 아니라 청교도운동과 같은 신앙회복운동으로 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합동신학대학원대(총장 정창균) 청교도연구센터는 13일 경기도 수원 영통구 대학 대강당에서 ‘청교도 대강좌’를 열고 개인과 교회, 사회의 갱신 운동이었던 청교도운동을 되돌아봤다. 이날부터 4일간 진행되는 청교도 대강좌는 합동신대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10가지 프로젝트 중 하나다. 지난날 위그노 프로젝트에 이은 두 번째 프로젝트로 주제를 ‘청교도 신학의 한국교회를 위한 묵회적 적용’으로 정했다.

청교도운동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칼뱅주의자들이 영국 튜더 왕조의 종교정책을 반대하면서 일어

났다. 이들이 보기에 튜더 왕조가 진행하는 종교정책은 로마 가톨릭의 미신적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미완의 개혁이었다.

대강좌 첫날 강의를 맡은 청교도 연구센터장 안상혁 교수는 “청교도 지도자들은 튜더 왕조의 종교정책에 반대하며 스스로 종교개혁의 핵심을 대중에 선포했다”며 “외면적이고 제도적인 교회개혁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현장 밀착형인 삶의 개혁이었고 경건주의 운동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청교도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요소들을 찾아 제거하는 동시에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자 노력했다”며 “오늘날 한글로 번역된 청교도 저작의 다수가 성경 주해 설교라는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경남지역 2500여 교회 2만여명 집회, 창원시내 행진

경남기독교총연합회와 경남성서화운동본부는 25일 경남 창원 용지문화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경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력 촉구했다.

최홍준 부산 호산나교회 원로목사는 “가장한 인권조례안 폐지하라”는 설교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보호하려는 동성 간 성행위는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시고 불쾌하게 여기시는 죄악으로 창조섭리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위험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목사는 “악한 인권독재가 윤행하는 시대 속에서 기독교인은 절대 진리를 지키고 사회변리를 막고 국민 보건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가장한 인권조례가 폐기될 때까지, 인권 독재가 뿌리 뽑힐 때까지 기도하며 싸우자”고 독려했다.

지영준 변호사(범무법인 저스티

스)도 “경남도의회는 국회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업무인 인권 관련 법안을 만들 수 없다”면서 “그런데도 경남교육청과 도의회는 사실상 학내 차별금지법인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교사와 학교를 통제하는 학내 인권경찰을 설치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지 변호사는 “잘못된 조례와 성인권 교육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정신을 개조하는 불상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기독교인이 앞장서자”고 말했다.

청와대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국민청원을 제출한 학생도 발언대에 올랐다. 김해서중 3학년 정모군은 “에이즈 감염, 미혼모 양산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청소년의 동성·이성 간 성관계를 경남교육청이 앞장서 정상으로 가르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박종훈 교육감이 추진하려는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은 주변 친구뿐만 아니라

안 교수는 청교도 연구의 의의가 여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덕과 윤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지만 이는 자칫 기독교를 일종의 도덕성교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한국교회는 청교도 연구를 통해 말씀에 기초한 경건 운동이 무엇인지, 개혁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선 학계를 중심으로 청교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출간된 청교도 관련 서적이 1950년에서 2000년까지 출간됐던 서적의 6배가 넘는다. 국내 학자들에 의한 연구물 역시 2000년 이후 출간된 문헌이 이전 연구물 모두를 합친 것의 3배 이상이다. 안 교수는 “이러한 관심 역시 오늘날 한국교회와 정황 속에서 청교도를 연구하는 유익과 의의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생님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군은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학생에게 지나친 권리를 주고 선생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시대가 됐다”면서 “평범한 학생들도 반대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막아서 우리가 다니는 학교를 지켜 달라”고 부탁했다.

2500여 교회가 소속된 경남기독교총연합회는 “동성에 동성혼을 정상화하 가르치고 교회에 위하게 되는 이단, 사이비를 비판조차 못하게 하는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만여명의 참석자는 경남도의회에서 조례상정이 불법에 그치고 서울 광주 경기 전북에서 통과된 조례가 이번 계기로 모두 폐지되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참석자들은 창원KBS 사거리를 출발해 경남도청, 경남교육청을 거치는 가두행진을 했다. 이날 창원 한빛교회 당회는 박 교육감의 교인등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열기로 했다.

통합 총회는 이날 통합 헌법도 공포했다. 헌법은 총 10편으로 구성됐다. 오순절적 신앙을 가진 교회와 회중으로, 세계선교와 예배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다한다는 교단 정체성을 천명했다. 특히 총회 임원의 조건으로 무흠을 강조하고 세부사항을 부칙에 명시했다.

교단 헌법이 규정하는 흠이란 교단 재판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거나 사회법에서 200만원 이상 금고형이나 6개월 이상 징역형(징유 포함)을 받은 경우, 교회건축 과정에서 재정관계(200만원 이상)로 처벌을 받은 경우다. 청렴한 교단으로 서 임지를 굳히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앞서 두 교단의 임시총회에서는 여의도순복음이 대의원 832명 중 702명, 서대문은 대의원 436명 중 410명이 참석해 통합추진위가 합의한 내용을 각각 인준했다.

게 광고를 노출하기 위해 저속 운전까지 감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포구 관계자는 “버스 전면을 도배한 광고물은 모두 불법”이라며 “불법광고물 차량을 적발해 시정명령, 강제이행금 부과 등을 내리고 있지만 관할구역을 넘나들며 수시로 옮겨 다니는 탓에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단속·처벌하는 법규가 보완·강화돼야만 효과를 거둘 것 같다”고 전했다.

신천지는 26일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한기총 앞에서 ‘한기총 폐쇄 쟁기대회’를 열었다. 한기총이 발간한 이단 자료집에 따르면 신천지는 구원료, 하나님의교회(옛 안상홍증인회)와 함께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이다. ‘이만희 총회장=보혜사’라는 교리가 대표적이다. “우리에 게만 구원이 있다” “예수 재림은 우리 단체에서 이뤄진다” 등의 극단적인 주장도 서슴치 않는다. 무료로 성경공부를 시켜준다며 정통교회 교인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한동대생, 학교·교수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제2 강의석 사태 변질 우려” 한동대, 교계 지지·협력 당부

한동대에서 다자성에(폴리아모리) 매춘 낙태 옹호 강연을 주도했다가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A학생이 최근 한동대와 교수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동대는 이번 사건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독교 학교의 신앙교육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송인만큼 교계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A씨는 한동대와 교수 3명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인 10명을 통해 44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동대가 불허 입장을 밝힌 강연을 강행한 후 해당 교수들이 성명서와 수업을 통해 자신에게 ‘폴리아모리 행위를 한 학생’ ‘다부다처로 살고 있는 사람과 교제한다’ 등의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수들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한동대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 학칙 내용과 다자성에 동성애는 서로 맞지 않고, 학생들이 입학 지원 시 설립정신과 학칙, 규정을 따른다고 서약서를 제출한다”면서 “이 문제는 한동대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형사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면서 “교수들의 발언은 한동대 교육이념에 반하는 이단적 사상을 공문화함으로써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교육목적, 교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반박했다.

한동대는 강연을 준비했던 타 학

“한국교회 목회자들 오나 같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창립 20주년 자성 목소리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라는 가치 아래 만들어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대표회장 이성구 목사)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많은 목회자들이 모였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 상황 앞에 자성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한목협 명예회장 전병금 목사는 20일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20주년 감사예배에서 “20년 동안 나를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로 위해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선 헛되다 생각하셨는지 더 큰 위기에 빠졌다”고 개탄했다.

이날 설교 말씀을 전한 전 목사는 요나서 말씀을 인용해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가 아닌 다스스로 떠난 요나 같다”며 “우리 나름으로 잘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우린 니느웨로 가지 않았다. 다시스로 가면 서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는데 열린 세상에서 편안함만 구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목협 회장인 이성구 목사도 “창립 20주년 행사를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다. 그는 “20

“생명을 살리는 목회하겠다”

예장백석대신 목회자 1400여명 영성대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총회장 이주훈 목사) 목회자 1400여 명이 26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생명, 교회를 살리자’는 주제로 목회자 영성대회를 개최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시대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목회를 다짐했다. 영성대회는 교단 총회 다음으로 큰 행사로 생명력 있는 목회원리를 나눈다.

장종현 백석대 총장은 “목회자가 미국과 유럽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초동학문에 불과하며 영적 생명을 회복시킬 수 없다”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윤리

적·학문적 설교나 강의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에 있음을 명심하자”고 당부했다.

장 총장은 목회의 주제가 하나님 임을 고백하는 성령충만한 사역자가 되자고 독려했다. 그는 “교회의 침체는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적 철학으로, 사본적으로 분석하면서 시작됐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생명력은 주석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성경을 간절히 사모하고 새길 한 뒤 불길같이 스치는 것을 강단에서 선포할 때 생명력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장 총장은 “목회자가 돈과 명예를 좇을하고 중보자 되신 예수그리스도가 삶을 지배할 때, 성령님의

생처럼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경우 징계수위를 낮출 계획이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기독교의 설립 이념, 학교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13일 “다자성애나 동성애는 절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한동대의 기독교 정신과 양립할 수 없다”면서 “비록 교수 3명에 대한 소송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한동대의 기독교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이어 “법정에서 민변 소송 변호사들이 다른 기독교대학은 가만히 있는데 왜 한동대만 그렇게 나오느냐고 따졌듯 이번 소송은 신앙교육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기속 소송”이라며 “미션스쿨에 악영향을 미친 대항 사건처럼 제2의 강의석 사태’로 변질 수 있는 만큼 교계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현재 다수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 문제를 놓고 중보기도 모임을 갖고 있다.

년간 뿔 뿔하나 물으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야겠다 생각도 했지만 그럼에도 한국교회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열망 때문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목협 명예회장 김경원 목사는 영성 메시지를 통해 “한목협 시작을 함께했던 한 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축하를 하지만 막연히 축하를 전하기엔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어둡다”고 말했다.

한목협 원로들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모두가 다시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결집하기를 희망했다. 한목협 명예회장 손인웅 목사는 “창립 정신을 되살려 그때의 감격을 회복하고 한국교회 비전을 제시하는 한목협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명하심을 간구하며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 수원 예수마을셀교회 목사도 소그룹 중심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생명력 있는 목회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핵심 요소는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가치, 탄탄한 교회 시스템, 열정적인 영성, 성령의 기쁨 부으심”이라며 “목회자는 성도들이 신자를 넘어 제자가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이다. 같은 가치를 갖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비전을 이룰 평생 동역자를 세우자”고 당부했다.

대회는 28일까지 진행되며 임석순(서울 한국중앙교회) 박재열(서울 동선교회) 윤호균(용인 화광교회)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선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서대문, 한몸

통합총회 열고 10년 만에 하나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총회와 서대문총회가 마침내 통합했다. 2008년 분열 이후 10년 만이다. 양 교단은 20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제 67차 임시총회를 각각 개최해 통합을 결의하고 이어 통합총회를 열어 통합을 선포했다. 통합 교단의 명칭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로 했다. 두 교단은 이번 통합으로 5200개 교회, 180만 성도 규모의 대형교단으로 재탄생했다. 향후 옛 기하성에서 분리된 교단들의 통합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분열된 한국교회의 하나 됨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합 총회는 임원을 발표했다. 대표총회장에 이영훈 목사(전 여의도순복음 총회장), 총회장에 이태근(전 여의도순복음 수석부총

회장) 정동균(전 서대문 총회장) 목사를 각각 추대했다.

대표총회장은 통합된 교단을 대표해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장은 대내 업무를 총괄한다. 이 밖에 부총회장 총무 서기 재무 회계는 공동으로 업무를 담당한다. 통합 총회의 임원 임기는 내년 제 68차 총회부터 2년으로 하되 재선임을 받으면 2년 연장한다.

통합 총회는 순총회원 정상화와 언급재단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교단의 직원을 그대로 승계하고 행정과 재정을 합병하며 모든 위원회 및 총회 행정체제를 완성하기로 했다. 오는 28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통합 감사예배 및 대표총회장 취임예배를 드리기로 했으며 다음 달 4일엔 통합 총회 실행위원회를

신천지, 기독교 비난 불법 래핑버스 운행

전국 100여대...자극적 문구 붙인 버스, 도로에 무단 배차

25일 낮 서울 양화대교 북단. 한국교회 대표적인 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CBS기독교방송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불법 래핑버스(wrapping bus)가 버젓이 놓여 있었다.

파란 바탕의 버스에는 ‘부패한 한기총, CBS 폐쇄하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또 ‘신사참배 친일파 후손 한기총’ ‘동방요배 이방신에 충성, 맹세한 장로교라는 큼직한 문구도 눈에 띄었다.

버스 운전기사는 래핑버스 운행에 대해 “회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버스의 광고 내용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총회장 이만희)의 주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개월 계약을 맺고 서울 마포와 영등포 일대에서 운행하고 있다. 전국에 이런 버스가 몇 대 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래핑버스는 대형버스에 광고물을 덧씌워 홍보효과를 극대화한 옥외광고물이다. 2002년 월드컵 당시

TV 연예프로에 등장하면서 광고마케팅에 본격 활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버스 전체가 광고로 뒤덮인 신천지 측의 래핑버스는 불법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시내버스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 광고물은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에 표시하고,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차량 래핑광고와 위반 시 사업을 자동차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자가용 차량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신천지 측의 래핑버스를 지나가던 시민들은 “한국교회 이단아 이만희를 규탄한다” “불법주차다. 벌금을 내야 한다” “한국 기독교가 지탄받을 일을 많이 했다” “나는 신천지 신도다. 사실을 말해도 우리 교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뭐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도시미관을 해치고 도로 등에 불법 주차하는 등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높았다. 많은 사람에

“전 감독 퇴진하라” 기감 공대위 조직

27일 기감 13개 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내부에서 성추문에 휩싸여 있는 전준구 서울남연회 감독에 대한 사퇴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기감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와 여성교회전국연합회, 기감 여장으로 회전국연합회 등 13개 단체들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리회관 본부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 제명’과 감독 당선 무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발

족했다.

참석 단체들은 “정의로운 기감 총회로 탈바꿈하는 출발점이 바로 전 목사 사퇴”라고 주장하면서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송정호 기감 바른선거협의회 회장은 “전 감독이 즉시 공직에서 물러나야만 기감의 실추된 영적권위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다”면서 “고귀한 목사 신분을 악용해 하

나님의 양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은 성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백삼현 기감 여성교회전국연합회 회장도 “기감이 이 지경이 된 건 그동안 불의를 보고도 침묵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 회개하자”고 했다.

전 감독은 최근 기감 제33회 총회 국위원장 인사에서 역사보존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등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기감 여성단체들은 전 감독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소했다.

교도소 선교칼럼 (51)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행복한 토끼-크리스탈 기스파이

크리스탈은 아주 밝은 미소를 지닌 젊은 여자이다. 물론 그녀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처음 들었던 이야기는 그녀가 감방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귀신에게 주문을 외우면서 다닌다는 소문이었다.

“복사님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세요. 갑자기 남편을 잃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며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힘을 얻었어요.”

크리스탈은 입을 열 때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사람이었다.

교도소를 떠나는 슬픔

그레그는 A등의 훌륭한 설교자였다.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본인이 설교하기를 원했고 설교도 열정적으로 했다. 그는 설교문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써서 나에게 주었다. 교도소를 떠날 날이 가까워지면서 그는 슬프다고 했다. 왜 슬픈가를 쓰라고 했더니 놀라운 간증문이 되었다.

소에서 하나씩에서 나의 마음을 돌이키실지 누가 알았겠는가? 인생은 정말 멋있다!

“복음을 전하는 기쁨”-그레그 리스코

나는 제퍼슨 카운티 교도소에 있을 때 처음 복음을 들었다. 거기에서 살인 기소된 타드라는 남자를 만났는데 자기 여자 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들어왔다. 타드는 만약 하나님이 사형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헌신하겠다고 서원했다. 그런 타드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복음을 전하려는 집념을 보면서 관심이 생겼다.

그 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되었다.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전에는 어떻게 하면 교도소에서 빨리 나갈까 하는 생각뿐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하는 것이 내 최대관심사가 되었다.

교도소를 떠나는 날이 슬픈 날이 되리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여기에 앉아 편지를 쓰는 동안 놀랍게 변화된 나를 발견했다. 교도소라는 극한의 환경에 있을 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모든 것이 변한다. 사람들은 고침 받고, 눈 먼 자가 눈을 뜨며, 절름발이가 걷고, 죄인이 용서받고, 마귀가 더 이상 그들을 주장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라는 성경구절과 죄의 산은 사망이고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타드를 무시했다. “하나님이 이 책을 썼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언제나 내가 논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 내가 몰랐던 것은 나의 어머니와 할머니, 교회 사람들의 기도가 이 교도소에서 결실을 맺기 직전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타드가 감방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나의 마음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에 물을 주었고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어서 결국 나는 주님을 영접했다. 사탄이 나를 괴롭히고 삶을 파괴하기 위해 보낸 교도

소에서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기에 교도소를 떠난다는 사실이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내가 이곳을 나갈 것이라는 걸 알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 현재로서는 확실한 날짜를 모른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른다.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하심을 감사하며 찬양 드리며 살 것이다.

선교 소식

중국정부, '성경 개작' 추진 교회 핍박 모자라 성경까지 조작하...

중국 정부의 교회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성경 개작(改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독교 선교단체인 한국 순교자의소리(VOM, Voice of the Martyrs)는 15일 중국정부부가 새 성경 제작을 목적으로 자국 교회와 목회자, 학자들을 회유하는 문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현수 폴리 한국VOM 대표는 보도자료에서 “최근 중국 산둥의 신학연구센터에서 세미나가 열렸다. 그런데 이날 중국 정부의 관계자들이 국영교회 목사와 학자들에게 새 성경 제작과 관련한 문서를 배포하며 성경 본문을 연구하라고 요구했다. 기독교에 사회주의 사상을 접목 시키겠다는 의도”라고 폭로했다.

중국정부의 인가를 받은 국영교회들은 중국정부를 찬양하는 노래를 하고 중국의 우월성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한다. 심지어 십자가 대

신에 시진핑 초상화를 건다. 중국공산당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월하다고 고백해야한다.

배포한 문서에는 성경 안에 중국의 사회주의 사상과 문화를 포함시켜야한다는 요구가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은 △예수님이 고대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공자나 도교의 경전으로 가르쳤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인으로서 조상들의 빼어난 철학과 이론을 망각하면 안된다. 중국의 새로운 성경에는 중국의 전통적인 이론이 포함되어야한다. △위대한 중국의 새 시대에는 기독교인이 믿는 교리도 새 시대의 필요와 관점에 맞게 바꿔야한다. △기독교인은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할 뿐 아니라 정치학, 야외운동, 그림그리기, 춤추기 같은 활동도 해야한다. △중국의 새 성경은 사회주의 핵심가치와 일치하고 중국공산당 강령과 결합해야한다 등이다.

반(反)중 인권단체 '차이나이에

스'의 설립자 밥푸(중국명 푸시쭈) 목사도 최근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중국정부는 기독교를 중국화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지난 3월 확정하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독교에 사회주의 사상을 주입하려한다. 중국정부 종교사무국의 감독 하에 모든 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삼자애국운동위원회, 중국교회협의회 등이 이 계획에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체제 출범이후 중국정부는 '기독교의 중국화, 중국적 특성을 가진 기독교' 정책을 추진하면서 교회 폐쇄와 십자가 파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기독교의 중국화'란 중국정부가 기독교 관리 및 통제를 주도한다는 의미의 용어다.

폴리 대표는 “많은 중국교회들이 지하교회(일명 가정교회)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 위치에 다른 사람이 나 다른 무언가를 갖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라며 “중국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위험하다. 그런 이유로 심문을 받고 감옥에 갇힌 사람도 많다”고 한국교회의 기도와 관심을 호소했다.

“죽음 두려워지만...”

인도 원주민에 피살 청년 선교사의 감동 고백

“주님, 전 죽고 싶지 않아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들에게 가야만 합니다.”

오랜 시간 문명을 거부해온 인도의 원시 부족민에게 복음을 전하려다 숨진 미국 청년 선교사의 마지막 고백이 기독교인들을 울리고 있다. 죽음을 직감하고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는 원시 부족민에게 다가갈 손을 내밀었다.

미국 캔자스시에 본부를 둔 기독교 선교사 교육·과전 단체인 올네이션스는 22일 워싱턴 주 벤쿠버 출신 선교사 존 앨런 차우(John Allen Chau, 27)가 지난 16일 인도 북 센티넬 섬(North Sentinel Island)에서 선교 사역 도중 숨졌다고 밝혔다.

인도 벵갈만의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에 속한 섬에는 센티넬 족이 인류 문명을 거부하고 살고 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이들은 아프리카에서 6만 년 전 건너온 직계 후손으로 현재 40-500명 정도가 부족 생활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외부인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린다. 2004년 지진 해일이 발생하자 인도군이 헬리콥터를 보내 피해 규모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센티

넬 족이 헬리콥터를 향해 활을 쏘고 돌을 던지며 강하게 저항하기도 했다. 인도 정부는 2005년 섬 반경 3마일 이내 접근 금지령을 선포했다.

차우는 현지 낚시꾼 다섯 명을 고용해 섬 근처로 간 뒤 카누를 타고 섬으로 다가갔다. 부족민들은 화살을 쏘며 공격했다. 낚시꾼들은 차우가 화살에 맞고도 부족민들에게 다가갔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부족민들은 시신을 밧줄로 끌어내 모래에 파묻었다.

차우는 2015년부터 수차례 북센티넬 섬 상륙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원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성공하지 못했다. 숨지기 전에는 섬에 상륙한 뒤 “제 이름은 존입니다. 전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당신들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쳤다. 이 때 원주민 소년의 화살이 차우가 들고 있던 성경을 관통하자 그는 일단 섬에서 빠져나왔다.

차우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따르기로 결심했다. 사고 당일 낚시꾼들에게 자신을 다시 조용히 섬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차우의 솔직한 심경이 담긴 고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서 받아 공개했다.

“전 두려워요. 석양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바라보는 이 석양이 끝은 아닐까하는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당신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전 죽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전 제 그곳에서 주님을 선포하는 게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죽음이 있을까요. 이 일기가 마지막이 아닐까 희망합니다. 만약 마지막이라면 그런 죽임의 영광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누군가 섬에서 절 죽이려 한다면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설령 그들이 절 죽이더라도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차우의 가족들은 “사랑스런 아들이며 형제, 삼촌이었던 차우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숨을 거뒀다”면서 “일부 애꿎은 여행을 가 사고를 자초했다는 비난이 있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갔다. 그들의 비난도 용서한다”고 덧붙였다. 차우의 어머니는 워싱턴포스트에 보낸 이메일에서 “제 기도 속에서 제 아들은 아직 살아 있다고 믿는다”고 전하기도 했다.

올네이션스측은 시신 수습 등을 위해 미국과 현지 정부간 협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E-Mail: Youth@thksc.org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후 8:00(토) 영아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8 facebook.com/thksc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E-Mail: naengsun@yaho.com / www.lafgusa.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W.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www.youngnak.com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ail: naengjeil@naver.com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6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아)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토요일(성령-결): 오전 5:30 토요일(성령-결): 오전 6:30 토요일(성령-결): 오전 9: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ail: Youth@denndun.com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denndun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장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학교: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11:20 영아예배(성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중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오후 7:30 www.dkc.org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 속에 흠뻑 젖어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228 (전화 팩스 전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00 주일 4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www.mpcj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lin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아)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아)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주일 학교: 오전 6:00(토) 토요일(성령-결): 오전 9:00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효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성령찬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LA 복음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 김효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아동부/청소년부: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성령찬양예배(목요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323)641-0691 / ys2104@hotmail.com / www.lagumc.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2:00(대학동) 수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웨스턴교회 담임목사 : 정상기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818)634-2315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얼버인침례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St., Irvine, CA 92604	일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아)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아)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성령-결): 오후 6:00 Tel: (313)384-7274, Fax: (3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1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성령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회: 365일 24시간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영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찬양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min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cj.org	중은마음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학교: 오전 11:0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 e-mail: pastor@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org / e-mail: pastor@corne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2	토렌스웨스턴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아)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청년)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들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제 4회 신앙도서 독후감 심사평



백승철 (시인, 사모하는교회 담임목사)

게 된 동기와 글쓰기와의 연관성을 시작으로 글을 읽고 난 후의 적용을 깔끔하게 처리해 놓았다. 하지만 그 적용의 범위를 너무 확장시켰기 때문에 집중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노영매는 책 한권의 내용을 줄이고 요약하는 객관성이 뛰어나지만 그 책에서 가장 가슴에 와 닿는 '공동체 고백'을 찾는 눈썰미가 독후감의 중심을 잡고 있다. 글쓰기에 계속 전념한다며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려상(1) 김태역(집사, 샌프란시스코)이 읽은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는 적용 부분에서 설득력이 약화되었다. 장려상(2) 김복숙(집사, 산호세)은 '페이버'를 읽고 친구에게 '실리콘밸리에서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독후감을 정리하였다. 새로운 참신성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보니 글을 읽은 김복숙의 적용된 정서가 약화된 것이 흠이 되었다. 장려상(3) 홍정주(집사, 타코마)가 읽은 '페이버'는 독후감 원칙에 충실한 작품이지만 내용과 적용부분이 빈약한 것이 약점으로 남았다. 장려상(4) 나승희(집사, 로스앤젤레스)가 읽은 '어머니 부르고 싶은 어머니'는 도입부가 참신하였지만 책 내용 소개가 진부하게 늘어진 아쉬움이 있었다.

아쉬움은 다음 회를 기다리게 하는 소망이다. 신앙도서독후감 공모가 회를 거듭할수록 양질의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길이 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최우수상 작품을 다시 기대해본다.

이제 회를 기다리게 하는 소망이다. 신앙도서독후감 공모가 회를 거듭할수록 양질의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길이 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최우수상 작품을 다시 기대해본다.

지난 해보다 많은 사람들이 응모했다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특정 독후감 지정도서에 하나로 몰리는 풀림현상 없이 다섯 권의 책 모두 응모된 것을 보면 글을 읽는 독자들의 경향이 넓어졌다는 의미다.

'페이버(하형록)' 13편,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한홍)' 4편, '어머니 또 부르고 싶은 어머니(류태영 박사의 8인)' 4편, '은혜 받은 습관(데이비드 마티스, 조계광 옮김)' 2편, '살피심(김양재)' 6편으로 최종심에 오른 작품은 29편이었다.

우수상(1)을 수상한 조훈호(전도사, 텍사스)는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를 읽고 구체적으로 '아멘이 이뤄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고민과 결론을 책 속으로 들어가 동화되면서 자신의 삶을 유추하고 있다. 글의 짜임새와 균형, 매끄러운 흐름이 눈에 띄었지만 적용에 있어서 추상적인 감정이 흠이 되었다.

또 한명의 우수상(2)은 노영매(권사, 캘리포니아)가 읽은 '살피심'이었다. 글의 서두에 글을 읽

의 글, 간증형식의 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글, 서평 형식의 글은 독후감이라고 말할 수 없다. 독후감은 내가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적는 글이다. 이 간단한 1차 명제에 과반의 작품이 심사영역에서 벗어났다. 이번 회에도 최우수상을 선정하지 못해 아쉬움이 컸지만 심사 과정에서 우수상과 장려상 부분에 1명씩을 더해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을 선정하였다.

우수상(1)을 수상한 조훈호(전도사, 텍사스)는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를 읽고 구체적으로 '아멘이 이뤄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고민과 결론을 책 속으로 들어가 동화되면서 자신의 삶을 유추하고 있다. 글의 짜임새와 균형, 매끄러운 흐름이 눈에 띄었지만 적용에 있어서 추상적인 감정이 흠이 되었다.

또 한명의 우수상(2)은 노영매(권사, 캘리포니아)가 읽은 '살피심'이었다. 글의 서두에 글을 읽



제2회 황금기선교사 임명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케냐 김동희 선교사 외 22명 제2회 황금기 선교사 임명 및 파송예배

제2회 황금기 선교사 임명 및 파송예배가 11월 16일 오전 11시, 선교사 미니스트리&GMAN(대표 김정한 선교사)에서 열리고 케냐 김동희 선교사 외 22명의 선교사에게 황금기 선교사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현영 목사(큰빛감리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파송예배에서 김정한 선교사가 환영사를 하고, 김만덕 장로가 특별찬양을, 김삼기 목사가 대표기도하고 최현영 선교사가 설교를 했다.

최 선교사는 이사가 7장14절을 본문으로 "우리 주님은 온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바란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황금기 선교사로 자원한 여러분들에게 예수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빌립 선교사가 축사했으며 김정한 선교사가 격려사를 했으며 최현영 선교사가 축도했다.

조현영 목사 사회로 이어진 황금기 선교사 임명식은 김정한 선교사가 경과보고와 임명자 소개를 했으며 김민희 목사, 김동희 선교사가 대표로 임명자 소감을 밝혔다.

이어 임명받은 선교사들이 임명자 사명선언문 선서를 했으며 최현영 선교사가 노정혜 목사 등 2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 참석 한 모든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필라 안디옥교회 제24차 다니엘 특별 새벽부흥회에서 교인들이 찬양하고 있다.

"살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주제

필라 안디옥교회 제24차 다니엘 특별 새벽부흥회

필라 안디옥교회(담임 호성기 목사)는 지난 10월 25일부터 21일간 제24차 다니엘 특별 새벽부흥회를 개최했다.

이 새벽부흥회는 호성기 담임목사를 감사로 "살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라는 주제를 통해 21명의 신구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주중 300여명의 성도들과 매주 토요일에는 500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세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 되는 모임을 보냈다. 특별히 올리는 안디옥교회 찬가 한어부, 영어부, 스페니시부, 다민족교회, 시티교회, 그리고 차세

대로교육부에서 같은 본문과 주제로 각 예배 처소에서 말씀을 증거하며 그리스도 안에 하나되는 OICC(One In Christ Church)를 실현했다.

설립 후 지난 24년간 매해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되새기고, 새해를 준비하는 필라 안디옥교회 21일 다니엘 특별 새벽부흥회는 이제 필라 안디옥교회의 영적인 브랜드 네임이 됐다.

호성기 담임목사는 마지막 집회에서, "특새의 마지막 날은 기도를 하러 나오는 끝 날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은혜 받고 무장한 만큼 매일 드러지는 새벽예배에 목장이 헌신하는 날로, 차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는 토요일만큼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한다"는 권면으로 도전을 했다.

필라 안디옥교회는 사정상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인들을 위해 홈페이지(www.antiochchurch.org)에 특별 새벽부흥회 영상을 업데이트 했다. (기사제공: 필라 안디옥교회)



지난해 제3회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우수상-조훈호 노영매, 장려상 4명 세계한인기독언론협, 제4회 독후감공모전 수상자 선정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임승배 장로)가 주최하고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가 후원한 제4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에서 △우수 조훈호 전도사(텍사스, 도서: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노영매 권사(캘리포니아, 도서:살피심) △장려상 김태역 집사(샌프란시스코, 도서: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김복숙 집사(산호세, 도서:페이버), 홍정주 집사(타코마, 도서:페이버), 나승희 집사(로스앤젤레스, 도서:어머니 부르고 싶은 어머니) 등 6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23일 로텍스 호텔에서 언론협 임원들과 심사위원이 함께 모임을 갖고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위원장 백승철 목사는 "지난해 제3회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응모했다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특정 독후감 지정도서에 하나로 몰리는 풀림 현상 없이 다섯 권의 책 모두 응모된 것을 보면 글을 읽는 독자들의 경향이 넓어졌다는 의미다. 최우수작이 없었어 아쉬긴 하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글의 수준도 향상되고 있어 두 명의 공동 우수상을 선정했다. 내년에는 최우수 작품을 꼭 나오기를 기대 한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본 공모전 수상작품은 소속 언론사 신문에 게재되며 에피포드예술인협회(대표 백승철)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본 공모전을 위해 페이버의 저자 하형록 목사가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독후감공모전을 위해 후원금을 보내오기도 했다.

이번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은 12월 14일(금) 오전 10시 30분 J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시상식을 마친 뒤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총회가 열린다. (이성자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018 후원자의 밤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이웃사랑' 예수님 방법대로 하라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018 후원자의 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018 후원자의 밤이 지난 25일 저녁 5시 30분 뉴욕에벤에셀선교교회에서 열렸다. 동 기구가 매년 후원자들을 초청하는 이 행사는 올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라는 주제로 사역소개와 함께 사역보고를 겸해 진행됐다.

유상열 목사(리빙스톤교회 담임)는 "어떤 사마리아인의 사랑"(눅 10:25-37)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본문을 통해 율법사의 이웃사랑과 예수님의 이웃사랑 개념의 차이를 설명하며 "첫째, 마음을 열어야 이웃의 고통이 들리고 보인다. 둘째,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방법에 대해, 셋째 지속적인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 사역소개는 권금주 목사(회계) 사회로 전희수 목사(사무총장)의 사역보고 후 황동익 목사(고문)의 순서로 진행됐다. 양민석 목

사(뉴욕교협부회장)가 축사했다. 이어 2018 단기선교사 과테말라 사역 영상보고가 있는 후 박진하 목사(고문)가 후원안내를 하고 월드밀알선교 합창단이 특별찬양 했다. 이날 황영진 목사(고문, 엘살바도르 선교사) 폐회기도와 김인한 장로(상임고문)의 만찬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콜롬비아와 페루,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코트디부아르, 북한 등에 180여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한 아동의 후원비는 월 30달러. 또한 아동후원 외에 페루지역에 사랑의 집짓기, 과테말라에 화장실 및 부뚜막 건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실건축도 후원하고 있다.

홈페이지 breadngospel.org, 이메일 breadngospel@gmail.com (유원정 기자)



해외기독문학협회 등단 및 출판기념 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4명 등단, 황동익 목사 시집 출판 해외기독문학협회, 등단 및 출판기념 감사예배

해외기독문학협회가 지난 24일 오후 4시 뉴욕대안교회에서 한국 창조문학 등단 및 황동익 목사 출판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김해중 목사, 조의호 목사, 최광진 목사, 이조연 권사가 등단시인으로 축하받았으며, 황동익 목사(뉴비전교회 담임)의 시집 "주님만

바라보며"(창조문학사) 북사인회를 가졌다. 예배는 최광진 목사 인도로 기도 이종명 목사, 설교 김해중 목사, 축도 한재홍 목사로 진행됐다.

김해중 목사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골4:2-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한 말

을 할 때 항상 감사와 같이 했다. 기도하면 우연한 일이 많이 생기는데, 우연 중에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과 역사를 깨닫게 된다"며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면 불행 중에 다행을 볼 수 있고, 평범한 일 가운데 기적을 보게 된다"고 역설했다.

2부는 이조연 권사 사회로 회장 인사말, 상패증정, 축가 손지혜 자매, 시낭송, 특송 김영재 전도사, 직전회장 감사패 및 이취임식, 축사 전희수 글로벌어목역 연합회장, 장석렬 미동부문학 이사, 황미광 미동부인협회 회장, 광상희 창작물리니 회장, 행사마감 및 식사기도 김길홍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출판기념회 겸 회장 이취임식을 가진 황동익 목사는 "지난 2년간 11회 회장직을 맡았는데 활발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12회 이조연 회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글을 통해 기독교문학 발전을 이루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시낭송은 황동익 목사, 김해중 목사, 조의호 목사, 최광진 목사 등이 자작시를 낭송했다. (유원정 기자)

중소형교회 대상 청소년연합수련회 12월 27-29일 프린스턴 웨스틴 호텔

지난 10년간 뉴저지 지역에서 중소형 교회를 섬겨왔던 CSO(Church Support Organization)에서 유스 사역 단체인 Streamside Ministry와 함께 청소년 연합수련회(Youth Wave Conference)를 개최한다.

교회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기 어려운 교회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유스 수련회는 12월 27

일부터 29일까지 "The Faith"라는 주제로 프린스턴에 있는 웨스틴(Westin) 호텔에서 열린다.

주 강사는 P. Sam Lee, P. Faith Cho, P. Peace Lee로 다양한 선택 세미나가 준비된다. 특히 이번 수련회 동안 유스 사역자를 위한 트랙이 운영돼 유스 사역자들의 고민과 현안들을 함께 논의하게 된다.

주최 측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가치관과 신앙을 지켜낼 뿐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The Faith(믿음)'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성장하며, 예수님과 개인의 개인적인 만남과 확신을 세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티셔츠와 숙박 및 식사 등 모두 포함한 등록비는 160불이다. 자세한 문의는 정인식 목사(201-696-8044)로 연락하거나 www.youthwav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손성대 이사장부부 뉴욕나눔의집 방문

지난 11월 22일 추수감사절 오전에 뉴욕교협 이사장 손성대 장로와 손옥아 권사가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을 방문해 터기 오찬을 제공했다. 뉴욕나눔의집은 노숙자와 중독자를 변화시키는 미주한인 노숙인 무료 쉼터로, 연말을 맞

아 나눔의집 쉼터 운영과 4주 합숙 전인치유교육을 통해 중독에서 자유케 하는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미주한인사회와 교회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 후원문의: (718)683-8884



기독교 경영 전략

기독교 경영 전략(Christian Business Strategy) 강의 (34)



세임스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기업법과 성경적 원리 (1)

기업법과 성경적 원리는 기업이 활동하는 사회 구조를 내에 존재하는 기업의 활동과 관련한 법률에 대해서 성경적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A.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완전한 법을 십계명이라는 형태로 인간에게 주셨으며, 도덕법이라고도 일컫는 이 법으로 인간들의 규범과 지침을 삼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출10-1-17). 또한 하나님은 국가라는 조직을 만드셨다. 그것은 세상에서 죄의 영향을 저지하고 억제함으로써 최

구절도 실상은 조화를 이룬다. 성경에 의한 성경의 해석이라는 것은 한 구절에만 의존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관련된 동일 주제 구절도 참고해야 함을 의미한다.

두 번째 근거는 율법 연구에서 특히 중요한 보편적 공평(General Equity)이라는 원리로,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등의 구약의 법령과 사법에 나타난다. 이 보편적 공평의 원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세 가지 범주(도덕에 관한 율법, 의식에 관한 율법, 사법 또는 국가 법률)로 분류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견해를 기초로 한다. 즉 도덕에 관한 율법은 십계명과 그 관련 사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지, 현재 정부들이 율법의 세부적이고 상세한 사항들까지 모방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이다.

C. 보응 (Retribution)과 배상

보응(Retribution)이라는 개념은 정의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로 키케로(Cicero)는 "정의란 각자에게 그 자신의 몫을 주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고 사도바울도 "잘 짓을 주라"고 하였다(롬13:7). 마땅히 줄 것을 주는 것이 정의의 행할 때에 중요한 원리이다. 불의는 항상 일러나며, 보응은 이러한 불의의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다. 범죄를

세속적 법률근거는 하나님의 신적계율 안에서 발견 정의의 가장 근본이 되는 보응은 손해 배상의 원리

소한 시민적 정의를 유지하고, 사회 안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며, 사람 사이의 정직, 겸손, 절제를 지키게 하고, 죄의 필연적인 결과로부터 재산과 인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세속적인 법률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적 계율 안에서 발견된다. 즉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실정법을 위한 지침이 된다. 성경적인 법률가의 임무는, 성경이 실정법에 얼마나 정확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이다. 분석방법은 2가지 해석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B. 성경이 법적 해석의 근거

성경이 법적 해석의 근거가 되는 첫 번째는 "Sacra Scriptural sui interpre" (신성한 성경자료가 해석의 근원이다)라는 개신교의 원리이다. 즉 성경은 "무오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자신도 스스로 모순이 없다는 것이다. 외관상 모순되어 보이는

항들을 가리킨다. 물론 이 도덕에 관한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완전하게 정의 내렸다는 의미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구속력이 있다.

한편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의식과 관한 율법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였다. 레위인의 제사장 의식, 의식적 정결과 희생 제물과 구속에 관한 모세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의식적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엡2:13, 골2:14, 히10:10).

국가 법률이나 사법은 이스라엘 사암들에게 정부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율법이다.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율법(모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편적 공평의 원리가 적용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오는 이 표현은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는 기본 원리를 정의한 것이다. 즉 율법의 본질적인 원리와 기본

저지르면 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계약 위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는 경우 가해자는 불의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배상을 하는 것이다.

보응(Retribution)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라틴어('지불'이라는 뜻의 'tribute'와 '다시'라는 뜻의 접두어 're')의 합성어임을 알면 그 의미가 확실해진다. 그러므로 형벌을 나타내는데 종종 쓰이는 보응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민사적 또는 형사적 보복이나 배상"을 의미한다.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은 상대방의 계약 파기로 피해를 입은 계약 당사자는 그 계약 파기가 본인에게 야기된 손해에 관하여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손해 배상(Compensatory damages)의 원리는 보응적인 것이며, 그 배상에는 기준이 따른다.

dr.jameskoo@yahoo.com

매일가정예배

전화형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순종하는 여자(딤후1:9-11)찬166장

여자교인은 남자교인의 경건과 관련된 교회 생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를 보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단정해야 합니다(8). 단정함은 성도의 신분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9).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지킬 정절은 바른 교훈을 모든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어떤 상황에서도 변절치 않고 그대

로 순종함이 여자교인의 영적권위입니다. 셋째, 선행을 힘써야 합니다(10). 교회는 가르치는 교훈을 강하게 하기 위해 그 교훈으로 선행을 나타내는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덕이란 모든 것을 견고하게 하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이는 여자교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나 그리스도의 신부인 모든 교인들이 힘써야 합니다. 그 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 여자의 경건한 침묵(딤후1:12-15)찬408장

사도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같은 권위를 가집니다. 여자교인의 역할 중에 사도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가르치고 주관하는 일을 금해야 합니다(12). 이것은 창조주의 질서가 재창조된 구속에도 반영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디자인을 존중해 각자 받은 고유의 특성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의 받은 은사를 말할시키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둘째, 일체순

종일관 해야 합니다(12). 순종을 요구함은 약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강한 자가 되고 교회에 큰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자의 순종은 이에 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셋째, 거룩에 거룩하게 힘써야 합니다(15). 겸손과 순종일관한 교회가 가장 귀한 열매인 거룩에 나가기 위함입니다. 이 거룩은 믿음과 사랑으로 표현되는 경건입니다. 여자의 조용한 경건행위가 교회를 강하게 세웁니다.

수 감독의 부름(딤후3:1)찬355장

여기 나온 감독은 목사의 직을 말합니다. 목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그 일은 교회에서 받아들여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미쁘다고 한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만큼 영광스럽고 보장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둘째, 그 부름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목사만

큼 세상에 가장 복된 직분이 없습니다. 말씀에 무식하거나 진리에 어두운 자는 이 직분을 받아선 안 됩니다. 셋째, 부름이 있는 자는 선한 일 곧 복음과 그 복음을 적용시키는 일에 재미를 느껴 그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 사역을 못한 인생을 산다면 앞이 캄캄할 정도로 허무함을 느끼게 정상입니다. 목사의 부름을 소중히 여깁시다.

목 감독의 자격(1)(딤후3:2-3)찬353장

감독으로 표기된 목사의 자격조항은 소명 받은 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첫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사도는 그 책망에 모든 방면에서 탁월한 경건함을 가질 것을 강조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은 허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허물이 많으면 그는 목사가 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주를 섬겨야 합니다. 둘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사도는 가정

생활의 건전함을 중요시 여깁니다(4-5참조). 가정생활의 실패는 목사 사역에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절제의 영입니다. 하고 싶다고 하고 자기 방법만을 고집하는 것보다 더 위주의 삶에 두어야 합니다. 목사는 이런 조항으로 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금 감독의 자격(2)(딤후3:2-3)찬378장

또 다른 자격조항을 사도는 말합니다. 첫째, 적극적 방면에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 대접을 힘써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복잡한 것을 피하고 진리 안에서 단순성을 가져야 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함을 누리며 나그네 대접 곧 이웃사랑을 즐겨야 합니다. 자기만 알고 소자를 응답할 줄 모른다면 그는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극도의 이기주의 시대에 이런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소극적인 불경건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주, 때리지 아니하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일을 금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화무쌍해도 이 기본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의 즐거움이 오직 하나님과 그의 진리여야 합니다. 이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우리가 이 원리를 따를 때 참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토 감독의 자격(3)(딤후3:6-7)찬343장

그런 중에 새로 입교한 자는 감독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첫째, 교만하지가 때문입니다(6). 목사가 그 마음을 잃으면 모든 일에 그르칠 수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을 소유할 때 모든 일이 쉬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연단을 통해 목사의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 외인으로부터 선한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6). 빛의 열매인 착함, 의로움 그리고 진

실함이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 때 외부의 비난과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마귀의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7). 어린 신앙의 사람은 물려오는 세상 유혹에 쉽게 빠져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신실하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한 마디로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먼저 선택사가 되어야 합니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해외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Heade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교회. Churches listed include Kumran, Ddunhan, Roman, Saeiden, Seungwon, Seungsil, Seungil, Sujeong, Seungdo, Siyeon, Singil, Shincheon, Shinchon, Anam, Yangok, Wangseong, Jangwe, Juang, Chuang, and Cheung. Each entry includes church name, pastor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부러움의 시대” ... 어느 선에서 만족해야 하는가?

가디언, 더욱 부추기는 SNS 홍수에서 생존할 수 있는 원리 제시

우리는 부러움의 시대(the age of envy)를 살고 있다.

남의 경력에 대한 부러움, 부엌에 대한 부러움, 아이들에 대한 부러움, 음식에 대한 부러움, 이두박근에 대한 부러움, 휴가에 대한 부러움 등, 거의 모든 단어에는 부러움을 가져다 붙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원전 4세기에 ‘타인의 행운은 고통’이라고 말한 것처럼 인간은 자신이 가져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 부러움을 느껴왔으며, 그로부터 약 천 년이 흐른 후 교황 그레고리는 마침내 이를 일곱 가지 죄악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페이스북이 사람들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온 미시건 대학의 심리학자 에단 크로스는 오늘날 소셜미디어의 발달이 “인간의 부러움을 극단적으로 키웠다”고 말한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꾸미진 삶”의 용단폭격을 받고 있으며, “이는 우리 종이 역사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전혀 긍정적이지 않은 비용을 우리에게 물리고 있다”고 말한다. 영국의 가디언지(The Guardian)는 따라서, 부러움의 시대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짚어준다(The age of envy: how to be happy when everyone else's life looks perfect).

임상심리학자인 레이철 앤드류는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이루지 못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이들을 보게 됨으로 인해” 질투를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었다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이 이런 심리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소셜미디어는 마침내 누구나 자신을 남과 비교할 수 있게 만들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웃을 부러워하는 정도였지만 이제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됐다.”

영국의 인지행동치료를 이끄는 이들 중 한 명인 윈디 드라이덴은 이를 비교병(comparisonitis)이라 부른다.

앤드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비현실적인 비교에 빠져들고 있다고 말한다. “모든 이들은 남들이 올리는 사진이 어느 정도는 보정된, 그들의 가장 관촬을 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러움증폭기를 주머니에 지니고 다니며, 침대 옆에 들러 앉아 하루 24시간, 아침에 깨어날 때부터 한밤중까지 계속 자신을 유혹하도록 만들고 있다.

앤드류는 그녀의 환자들이 자신들도 조작된 현실을 본다 것을 알고 있으며, #무보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태그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러움이 가진 강력한 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보아왔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보는 것을 함리적으로 판단하고 그 사진이나 이야기가 전적으로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감정적으로 베틀이 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이나 이야기가 자신이 바라던 것이나 갖지 못한 것일 경우 이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부러움이 우리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크로스과 그의 팀은 수동적인 페이스북 사용-그들이 “관음증적 구경”이라

이름 붙인-이 기분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연구를 고안했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2주 동안 하루 다섯 번의 문자를 받았고, 문자를 받은 때부터 수동적인 페이스북 사용을 시작해 자신의 기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았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페이스북을 더 많이 할수록, 부러움의 세기는 더 커졌고 기분 또한 나빠졌습니다.”

앤드류는 어떤 연령대나 사회적 집단도 이 소셜미디어 사용을 통한 부러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한다. 상담실을 찾는 젊은 여성들은 자신의 외모를 꾸미고자 인스타그램에서 머리 모양이나 화장법을 찾지만, 결국 자신이 팔로우하는 유명인에 대한 부러움과 자괴감을 더 갖게 된다.

나이든 사업가나 여성 역시 트위터에서 사업 전략이나 생활의 팁을 찾지만, 결국은 자신보다 더 성공한 이들을 보며 비탄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부러움은 친구나 가족의 외모나 생활양식, 경력이나 양육법 등 모든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누군가는 나보다 그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익스피어의 오펜로에 등장하는 이야고는 카씨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의 일상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그 앞에서 추해진다.” 그가 만약 오늘날 카씨오를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 했다면 얼마나 자신을 비참하게 느꼈을까?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 일이지만, 저명한 사회심리학자인 세리 터클은 “큰 문제가 뒤따른다”고 말한다. “우리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만들어놓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삶을 잃게 될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보이던 수준의 삶을 실제로는 살지 못할 때, 마치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처럼 느끼고 그 삶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이는 “자기 선망(self-envy)”라는 이질적인 감정을 마음속에 만들게 된다고 그녀는 말한다. “자신의 아바타에 대한 기이한 부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침 출근길의 녹초가 된 모습대신 보정된 #오늘뭐입지 사진의 자신을 보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싶어 한다. 인스타그램에 #푸드가 좀 더그를 붙이기 위해 버쳐 뮤즐리만, 한 입만 먹고 바로 뱉어버린다.

호수에서 오리배를 탈 때도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다 찍고 나면 할

이가 넘쳐나고 있다.

부러움에 대해 더 음침한 정의도 있다. 정신분석 치료사이자 “일상에서의 부러움(Envy in Everyday Life)”의 저자인 패트리샤 폴레드리는 부러움은 한 사람을 피폐하게

이는 부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기 매우 어렵게 만든다. 왜냐하면 상대의 것을 자기도 가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느껴지는 반면, 상대의 것을 파괴하고자 하는 욕망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

왜 말하려 하는지를 좀 더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내가 만들어내는 온라인상의 내 모습이 이 부러움의 시대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말이다.

트위터에서 승진을 알리는 것은 동료들에게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에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소식입니다만,”이라는 말을 쓸 때마다 우리는 왜 내가 이 글을 쓰는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친구나 가족, 동료들은 어쨌든 이 소식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 그게 개인적인 소식이라면 굳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은 자신의 경력에 유리할지 모른다. 하지만 거기에는 대가가 따른다. 바로 모든 사람이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며, 바로 그런 분위기에서 모두가 모두를 부러워하게 되는 것이다.

폴레드리의 부러움에 대한 음침한 정의에서 부러움에는 어떠한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도가 과하지 않다면, 부러움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기도 한다. 드라이덴은 “창조적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러움과 부정적인 부러움을 구분한다.

크로스는 배고픔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먹어야 한다고 말해주는 것처럼, 부러움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지를 알려준다고 설명한다. 앤드류 또한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이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나 아니냐, 이것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러움을 느끼는 대상이 성취 가능한 것이라면, 적절한 단계를 밟아 이를 이루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에게, 내가 어느 선에서 만족할 것인지 물어보아야겠지요.”

결국 여전히 우리는 소셜미디어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부러움이라는 불쾌한 감정을 느끼며, 친구나 가족들 또한 그런 감정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된다. 아마 우리는 “어느 선에서 만족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고, 우리들 역시 아직 이 질문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새롭게 바꾸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류재덕 목사는 “KUMC는 기도하는 교회다. UMC내 목사들이 한인 총회에서 안전 결정사항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정하는 모습을 높이 사고 있다”며 “2월 총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맡기시기 위해 열리게 되는 총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부러움의 시대를 사는 일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영화, The Jones, 2009년, 잘나가고 화목한 가정처럼 보이는 존스 가족 구성원들은 저마다 부러움의 대상이다. 따라서 이들이 입고, 먹고, 즐기는 모든 것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구매 대상이 된다.

만들고 심지어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매우 위험한 감정이라고 말한다.

“부러움은 다른 사람이 가진 무언가를 파괴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길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걸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이다. 폴레드리는 부러움은 타고난 감정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모성에 결핍 등에 의해 자존감이 부족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생기는 감정이라 생각한다.

한편 소셜미디어 습관 또한 바뀌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페이스북을 능동적이지 아닌 수동적

부러움은 사람을 피폐하게 하고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위험감정

“창조적 원동력” 될 수 있는 긍정적 부러움과 부정적 부러움 구분도

일이 끝난 듯 느낀다. 완벽한 카메라 각도를 찾는 동안 우리의 삶은 걸은 반짝이지만 속은 텅 빈 껍질처럼, 그저 남과 자신의 부러움만을 부추기게 된다. 동물 보호소에는 “셀카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입양되지 못한 검은 고양이

는 마음 속 매우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것으로, 다른 누군가의 행복을, 그것이 그의 외모나 지위, 아니면 그가 가진 자동차 등 무엇이든, 극도로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음침하고, 파괴적이며, 은밀한, 순수한 악이자 순수한 증오입니다.”

으로, 곧 글을 올리고 메시지를 보내고 답글을 다는 대신 그저 남들이 올린 글을 읽기만 한다. 따라서 능동적 사용보다 수동적 사용이 더 해로운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결국 아마 우리 각자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 내가 어떤 내용을

<9면에서 계속>

반면 두 번째 안이 통과되면 보수적인 그룹들이 UMC를 떠나겠다고 하는 등 대립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2월 총회는 교단의 동성애문제를 정리해서 결정하고 교단 안에 갈등과 혼란이 없도록 하는 모임이 아닌 그 이후 더 크고 깊고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지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재덕 목사는 “총회를 앞두고

한인교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감당할 것인가? 골리앗에 맞선 다윗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 나가셨다. 동성애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류 목사는 “교단 전체로 볼 때 한인교회와 교인의 숫자는 276개 교회 3만8천명 정도”라며 “총 700만개의 교회와 1200만 명의 교인수에 비해 한인들의 숫자는 많지 않다. 과연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된다. 총회이후 10-15%의 교회와 교인들의 이탈현상이 예상된

다”고 말했다.

그는 “한인교회와 교인들은 소수이지만 서부의 칼텍연합회 탐10에 들어가는 교회 중 8교회가 한인교회이며 뉴저지의 경우 탐 5교회가 모두 한인교회”라며 “동성애 이슈는 설부터 다룰 수 없으며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전체 1%도 안되는 미약한 수준의 한인교회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큰 영향력을 갖고도 있다. 이러한 영향력이 전체 UMC에 큰 영향력으로 다가갈 수 있으며 UMC를

AZUSA AWESOME NIGHT!

2018 아주사 송년 모임에 동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ZUSA 동문,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반갑고 즐거운 송년모임을 마련했습니다. 오랜만에 동문들과 만남을 통해 선후배 간의 마음 따뜻한 교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동문 여러분 모두 꼭 오세요!!!

일시 2018년 12월10일 월요일 오후 6시

장소 Garden Suit Hotel, Banquet Hall (68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5)

문의 승광철 목사 (661)681-9392, 송희진 전도사 (818)497-1964
경품추첨으로 50인치 스마트 TV와 서독안경 선글라스 4개, 학교셔츠, 블루투스 스피커 등 다양한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